

석사 학위논문

유교문화의 감정과학에 기초한 현대  
중국의 윤리교육 연구

A Study on Eethics Education in Modern China based on the  
Science of Feelings of Confucian culture.

국 민 대 학 교 일 반 대 학 원  
문화교차학협동과정 문화심리사회학전공

원 신 에

2023

유교문화의 감정과학에 기초한 현대  
중국의 윤리교육 연구

A Study on Eethics Education in Modern China  
based on the Science of Feelings of Confucian  
culture.

지도교수 성 동 권

이 논문을 문화학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5월

국 민 대 학 교 일 반 대 학 원  
문화교차학협동과정 문화심리사회학전공  
원 신 에  
2023

원 신 에 의

문 화 학 석 사 학 위 청 구 논 문 을 인 준 함

2024년 6월

심사위원장 유 영 관 ①

심사위원 성 동 권 ①

심사위원 최 인 호 ①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 차 례

국문 요약 .....	ii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	1
1. 연구 배경 .....	1
2. 문제 제기 .....	5
제2절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	10
1. 연구 방법 .....	10
2. 연구 범위 .....	14
제2장 현대 중국의 윤리교육 흐름 .....	16
제1절 행복에 대한 윤리학의 정의 .....	16
1. 공자(孔子)의 행복 .....	16
2. 당대 대학생들의 행복관 .....	18
3. 유가이(劉佳熠)의 행복 .....	19
제2절 도덕에 대한 윤리학의 정의 .....	21
1. 도덕적 행복관 .....	21
2. 심리(心理) - 도덕 교육 .....	22
3. 도덕과 행복 동일성의 정신철학적 형태 .....	24
제3장 유교문화의 윤리학으로서 감정과학 .....	28
제1절 「논어」의 감정과학 .....	28
1. 위기지학(爲己之學) .....	28
2. 지천명(知天命) .....	37
제2절 「대학」의 감정과학 .....	43
1. 명명덕(明明德) .....	45
2. 격물치지(格物致知) .....	57
제4장 유교 감정과학에 기초한 중국의 윤리교육 비판 및 분석 .....	68
제1절 감정과학에 기초한 중국의 윤리교육 비판 .....	68
1. 의무론 .....	68

2. 목적론 .....	71
제2절 감정과학에 기초한 중국의 윤리교육 제안 .....	76
1. 몸의 진실 배우기 .....	77
2. 감정의 진실 배우기 .....	79
제5장 결론 .....	83
참고 문헌 .....	85
Abstract .....	88

## 국문 요약

행복은 인류의 영원한 추구로서, 그 의미는 영원하다. 다만, 시대와 문화의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이를 실현하는 방법들은 변하고 있다. 글로벌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 개인의 행복을 실현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본문에서는 유교 교육 이념과 현대 교육 실천의 결합을 깊이 탐구하고, 감정과학 이론에 근거하여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과 진정한 행복을 촉진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안하였다.

행복은 인류의 영원한 추구 주제로서, 그 의미는 시대의 변천과 문화의 다양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해왔다. 의미는 속 뜻을 말하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글로벌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행복을 실현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더욱 절박하고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본문에서는 유교 교육 이념과 현대 교육 실천의 효과적인 융합을 깊이 탐구하고, 감정과학 이론에 근거하여 행복을 찾는 새로운 경로를 제안하였다. 감정과학 학문은 지식과 기술의 전달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육성도 강조한다. 인간의 감정 인지 및 표현 능력을 키워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은 더 이상 단순한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감정을 지닌 교육 과정이 된다.

본 연구는 먼저 유교 교육 사상의 핵심 내용을 회고하며, 특히 공자의 ‘인애(仁愛)’와 ‘예(禮)’에 대한 가르침을 다룬다. 이러한 사상은 중국 전통 교육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유교 교육은 지식의 전달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인격 함양과 감정의 수양을 중시하며, 이는 현대 교육에 중요한 인문적 관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교육의 시장화로 인해 현대 중국 교육 시스템은 이 전통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 지나치게 시험 교육과 기술적 기술 훈련에 중점을 두어 인간의 감정 발달과 도덕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현재 중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히 학생과 성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룬다. 이들의 심리 건강 상태와 행복감 조사 데이터를 평가함으로써,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감정교육의 부재,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족이 학생과 성인의 행복감 저하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한다. 또한, 현대 교육의 공리적 접근은 학생과 성인이 교육에서 진정한 만족과 개인적 성장을 얻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이 논문을 작성하기로 결심했다. 진정한 행복

을 찾기 위해서는 감정과학을 배워야 한다. 감정과학을 올바르게 학습한 결과, 공자의 학문이 감정과학의 사상임을 증명하였다. 공자의 학문이 우리의 신체를 배우는 필연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신체 내재적 본성을 배우는 필연적 사실임을 확정하였다. 이는 감정과학의 핵심이기도 하다. 공자의 감정과학에 따라, 신체가 ‘천명(天命)’으로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원래부터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과 사랑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미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으로 완전히 존재하고 있다.

교육의 성공은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복감 증진도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가 행복의 진실을 알게 되면, 분명히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행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의 신체를 학습하는 것이다. 신체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그 이해 속에서 무한한 감정을 느끼며, 이러한 감정을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대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감정과학을 학습한 후 행복의 본질을 이해하면, 외부에서 행복을 추구할 때, 물질이나 다른 것에 의존해서는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슬픔이든 기쁨이든 마음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생각할 수 있으며, 학습을 통해 감정의 진실뿐만 아니라 신체의 진실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신체 고유의 필연성을 이해하게 되면, 자신의 신체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최대의 행복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행복, 공자, 감정과학, 몸, 감정.

# 제1장 서론

## 제1절 서론

### 1. 연구 배경

#### 1) 내가 깨닫게 된 유교문화의 학문

내가 대학에 다닐 때 배운 전공은 바로 취학전 아동교육이다. 대학에서의 학습과 개인적인 탐구를 통해, 중국의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유교의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고, 따라서 중국의 교육에 유교의 사상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나중에 공부하면서 『논어』를 접하게 되었다. 『논어』는 중국 고대철학경전이자 유가학파의 중요한 문헌으로서 중국 춘추시기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언행과 사상을 기록한 책이다. 또한 중국인이란 누구나 어릴 때부터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가장 익숙한 문구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子曰：學而不思則罔，思而不學則殆。<sup>1)</sup>

이 말은 공부만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곤혹스럽고 막연해지며, 생각만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의심이 가득하고 명확한 견해가 부족해진다는 뜻이다. 현재 정보화사회에 있는 우리에게 정보처리는 이미 매우 편리하고 익숙해져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 그래서 생각하는 과정에서 느껴야 할 결과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한 결과와 정보처리에서 나온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때문에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배우는 것이 서로 보완되어야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을 깊이 알았다.

중국에서 유교 고전 문화를 공부하면서 유교 문화는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고 핵심은 ‘인(仁)’이며 친절, 자애, 배려, 연민을 대표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仁)’은 도덕기준일 뿐만 아니라, 행위규범이기도 하다. 또한 행동 강령이기도 하다. 가족, 친구, 낯선 사람을 포함하여 남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가르쳐 주며,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한다. 유교 문화는 가족 가치관을 강조하

---

1) 『논어(論語)』, 「위정(爲政)」, 15장.



여 부모를 존경하고 대인에게 효도하는 것이 최고의 도덕 준칙임을 깨닫게 하였다. 가정은 거주지뿐만 아니라 도덕과 감정을 배양하는 장소이다.

유가사상은 나에게 가족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라고 가르쳤다. 유교는 또한 사회 질서와 조화를 강조하는데, ‘예(禮)’는 중요한 사회 규범이며, 항상 나에게 타인을 존중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일깨워 준다. ‘인(仁)’과 ‘예(禮)’는 우리의 생활이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행위 준칙, 나의 모든 행동은 내 몸에 의거 하여 내가 내 몸과 같이 살았다. 이 세상에서, 몸과 함께 사는 것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고 함께 살아야 자신의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이다.

또한 유교는 학문과 지혜의 추구를 강조하여 나아가 수양을 향상시키고 겸손함을 유지하며 지식을 갈망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도록 격려한다. 요약하면, 유교 문화는 일종의 깊은 중국 문화 전통으로 나에게 윤리 도덕, 가정 관계, 사회 질서와 학문 추구 등 여러 방면의 중요한 가치관을 가르쳤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논어’의 말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 공자의 지혜는 항상 자신도 모르게 나의 인생방향을 인도하고 있으며, 나의 생활에서의 행동과 결정을 지도하고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국민대학교 대학원 문화교차학과에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나의 생각에 큰 변화가 생겼다. 어렸을 때 배운 유교 윤리 도덕 지식은 마치 마음속의 울타리처럼 나의 사상과 본성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문화교차학과에서 감정과학의 학습 방법으로 공자의 유교 사상을 다시 해석하는 것을 배우고, ‘논어’의 내포를 다시 이해하였다. 이 학습과정에서 나의 20여년 이래 유교 사상에 대한 고유한 사유와 견해를 바꾸었고, 나로 하여금 그 내용에 대해 또 새로운 이해와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

나는 문화교차학과의 ‘감정과학’(science of feelings)에 기초하여 ‘논어’의 이해에 대해 공부했다. 그 결과 깨달은 것은 유교 사상에서의 모든 지식은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이론적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자도 헛된 ‘이론 사상가’가 아니었다. 내가 확인한 공자의 학문은 몸의 본성을 인식함으로써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공자는 ‘감정 사상가’였다. 이 사실은 문화교차학과의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동권은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에서 공자의 학문이 감정과학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감정과학’(Science of Feelings)은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감정을 감정 그 자체의 본성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감정의 겉모습 같은 현상이나 감정에서 비롯된 어떤 행동 및 그 결과에 의존하여 감정을 해석하는 ‘감정 해석’이 아닙니다. 감정은 자기 존재에 관한 한 자기 본성의 필연성을 따라서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이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감정을 느낄 때 그 각각의 감정에 나아가 그 감정이 자기 안에 본래부터 품고 있는 자기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고, 그 결과 감정의 순선무악(純善無惡)을 확인하는 학문이 감정과학입니다.<sup>2)</sup>

공자의 학문을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몸과 감정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했다. 모든 사람은 '몸'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 몸은 이 세상에서 놀이하는 근본이며, 이 세상에서 체험하고 감지하는 매개체이다. 이런 현상을 '감정'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모두 감정의 매개체이며, 자신의 몸으로 놀이를 하고 세상을 느낀다. 사실 세상의 모든 문화도 '몸' 때문에 존재한다. 만약 이 세상에서 더 잘 살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것이다.

문화교차학과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몸과 감정 사이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공부과정에서 나는 몸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다. 감정과학의 공부를 통해 나 자신의 생활과 감정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내 몸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았다. 그들이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는 필연적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나의 몸의 존재도 필연적이다. 내 몸을 이해함으로써, 나는 생명과 사랑이 모두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몸을 사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이미 감정이 관련되어 있다. 이로부터, 감정은 본질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며, 감정의 본성은 필연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감정에 있어서 마음과 몸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마음의 기능은 생각하는 것이다. 마음이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면 몸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구현이다. 그리하여 공자의 유교 사상이 바로 '감정과학'이라는 것을 더욱 증명하였다.

문화교차학과의 공부를 통하여 나는 유가사상의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중국의 이론지식을 주입하는 '주입식' 교육과 내가 지금 배우는 지식의 전제는 먼저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것이며,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중국 문화는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통 문화는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으며, 유교 사상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고 심각한 주제이다.

## 2) 현대 중국의 유교사상 교육 현황

유가 사상은 중국의 교육 제도와 교육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다. 최근 몇 년간,

---

2)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21.

중국의 실용성과 기술 지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대 교육은 더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문화의 위치가 점차 사라져가고, 젊은 세대들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승이 부족해지고 있다. 사회적 변화와 현대화 과정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흔들 수 있으며, 사람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변화되고 유가 경전의 교육 사상은 점점 무시되고 있다.

우리는 공자의 이론을 잘 알고 있지만, 제 20년의 학습 경력 동안 중국의 교육은 여전히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읽고 암기하라고 강조한다. 이론적인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부족함이 있다. 중국 학생들은 유가 문화의 책에서 중요한 생각들을 외워두고,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종종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독립적으로 고민할 시간이 부족하다. 학생들은 지식만 강요받고, 자주 독립적으로 생각할 기회가 거의 없다.

또한, 매체는 부정적인 뉴스 보도로 가득 차 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북 대학부 자살자”<sup>3)</sup> 사건인데, 이 사건의 범죄 용의자인 오사우(吳謝宇)는 어릴 적부터 우수한 학업 성적을 거두었으며, 2012년에는 북 대학을 특별 입학했다. 학교생활 동안 자주 명예 메달과 장학금을 받았으나, 그는 무자비한 방법으로 친어머니를 살해했다. 지식 교육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감정 교육은 소홀히 되었고, 이것은 중국 현대 교육의 실패이다.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며,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이든 감당할 수 있으며, 허영심을 위해 부도덕한 일도 감내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상황을 바꾸려면, 중국의 전통문화의 도덕교육에 중요성을 더해야 한다. 우리는 감정과학의 학습 방법으로 공자의 사상을 다시 배워야 한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유가 윤리 교육을 다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유가 윤리 교육은 스스로 느끼는 감정을 학습하고 고민할 수 있게 하여, 그 안에 내재하는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한다. 우리의 감정이 ‘순수지선(純粹至善)’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세상이 순수성하고 악이 없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미 최고의 행복을 내면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유가 윤리 교육이 우리에게 전달해야 할 올바른 사상이다.

중국 교육의 문제를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이 논문에서 현대 중국의 윤리 교육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현대 중국의 윤리 교육 개선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

3) Baidu 백과사전, “오사우(吳謝宇)”, [https://baike.baidu.com/item/吳謝宇/19431403?fr=ge\\_ala](https://baike.baidu.com/item/吳謝宇/19431403?fr=ge_ala) (검색일: 2024. 03.10).

※ “북대 학벌 살인사건”: 오사우(吳謝宇)는 어릴 적부터 학업 성적이 우수하였으며, 2012년에는 북경대학교 자율 모집에 합격하여 경제학부에 입학하였다. 2015년 7월 10일, 오사우는 자신의 어머니인 세티 수진을 집 안에서 살해하고, 어머니의 명의로 가족과 친지들에게 총 1억 4400만 원을 대출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후 범죄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 도망갔다. 2024년 1월 31일, 오사우는 사형에 처해졌다.

## 2. 문제 제기

### 1) 현대 중국의 행복 감정

중국은 인구가 많은 나라로, 사회, 경제 및 문화에서 독특한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의 빠른 성장과 사회적 변화와 함께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과 생활 방식이 큰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행복감에 대한 추구하고 관심이 더욱 강해져 사회 각 영역의 관심사 중 하나가 되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중국에서 발표된 연구논문과 뉴스 보도를 중심으로 정리하겠다.

#### (1) 학생들의 행복

중국의 학생들은 시험 준비 교육에 많은 중요성을 두고 있으며, 한때 ‘항수 학습 모델’<sup>4)</sup>이 중국에서 매우 유행했다. 중국 학생들의 학습 효율은 ‘국제 학생 평가 결과’<sup>5)</sup>라는 항목으로 확인될 수 있다.

기초 역량 달성률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네 개의 도시의 학생들은 독해, 수학 및 과학에서 기본 수준 이상의 능력을 보였으며, 각각 94.8%, 97.6% 및 97.9%로 측정되었다. 이는 참가한 국가 및 지역에서 1위에 해당한다.<sup>6)</sup>

따라서 중국 학생들의 학습 능력은 매우 우수하며, 이러한 장점의 뒤에는 엄격하

---

4) Baidu 백과사전, “항수학습모델” [https://baike.baidu.com/item/衡水模式/18161189?fr=ge\\_ala](https://baike.baidu.com/item/衡水模式/18161189?fr=ge_ala) (검색일: 2024.02.12).

※ 항수학습모델 : 형수 중학교에서 현재 중국의 수능 시스템에 맞춰진 시험 준비 교육모델로, 이 모델에 따르면 학교는 마치 수능 가공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학생들은 공장에서 계속 돌아가는 기계처럼 창의력을 잃어버리며 시험 준비 분위기와 문제 해결 전략 속에서 자기 창조력을 상실하여 사회적 논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학업 성취율은 해당 지역에서 매우 높다,

5) Baidu 백과사전, “국제학생평가항목,” [https://baike.baidu.com/item/國際學生評估項目/12770834?fr=ge\\_ala](https://baike.baidu.com/item/國際學生評估項目/12770834?fr=ge_ala) (검색일: 2024.02.12.)

※ PISA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The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줄여서 PISA)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가 전 세계 15세 학생들에 대한 국제 대규모 테스트로 개최되는 프로그램이다,

6) 小树苗儿童教育(모목 어린이 교육), “时隔六年中国重返PISA世界第一!这些测评结果 更值得我们关注和深思”(6년 만에 중국이 PISA 세계 1위에 다시 올랐다! 이 평가 결과들은 우리가 주목하고 깊이 생각할 만하다), 光明网(광명넷), “邯郸13岁男孩被害案律师:18日凌晨已尸检, 孩子父亲全程见证”(한단 13세 남자아이 피살사건 변호사:18일 새벽 이미 부검했으며 아이 아버지가 전반 과정을 견증했다). <https://baijiahao.baidu.com/s?id=1793851785976594899&wfr=spider&for=pc> (검색일: 2023.11.07). (2019.12.17.)

면서도 혁신적인 교육방법이 있다. 학생들이 상당한 학업 성과를 달성했다고 해도, 그들의 성취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은 부정할 수 없다. 동시에, 학생들의 ‘행복감’ 문제는 점점 심각한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사회적 관계와 학생의 정신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에서 대학입시성적은 학생의 우수성여부의 표준으로 간주되고 있다. 사회의 인정과 성공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과도하게 대학 입시 성적을 강조하는 문제는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치열한 경쟁과 시험 준비 교육의 유행을 가져와 학생들과 가정에 무거운 학습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학생들은 거대한 학업 압력과 사회적 기대에 대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와 경쟁의 두려움에 직면하여 심리적 부담이 늘었다. 학문적 성과에 대한 사회적인 주목은 교육과 인재 양성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때로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행복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면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적인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져, 그들의 행복과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뉴스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학생들은 전 세계 학생들의 가장 불행한 순위인 7위에 올랐다. 2018년 PISA 테스트에서 “학생의 행복감”을 평가한 결과, 중국 학생들은 평가 대상이 된 71개 국가 및 지역 중 64위를 차지했다. 2015년의 41위에 비해 중국 학생들은 더욱 불행해졌다.

7)

이상 뉴스에서 학생들의 행복감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공부시키는 것은 그들을 학습의 기계로 만들었다. 기계에는 감정이 없으며, 계속해서 작동할 뿐이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 학습 방식을 바꿔야 하며,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 학습하고 학습 압력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의 전반적인 발전과 행복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가정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감정을 경험하고 학습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더 많이 느낄수록 그들의 행복감은 더 높아진다.

학교는 실패를 토대로 하여 중국의 전통 학문인 유교의 감정과학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과정을 개설해야 하며, 교육 체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신의 삶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 자신의 내면에서 감정의 필요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 자신의 이성적 욕구에 따라

---

7) 小花盛開藝術教育(꽃이 만발하는 예술 교육), “中國學生幸福感居然全世界倒數第七?教育問題始終是在改革的路上”(중국 학생의 행복감은 뜻밖에도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일곱 번째인가? 교육 문제는 시종 개혁의 길에 있다), (2021.03.21.). <https://zhuanlan.zhihu.com/p/359311076> (검색일: 2024.03.02.)

행동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감정적인 자기 이해를 통해, 이 세계에서 가장 완전하고 행복한 삶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학생들의 행복감이 감소함에 따라 교내 괴롭힘과 청소년 범죄의 뉴스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최신 뉴스는 다음과 같다.

2024년 3월 10일, 중국 하강성 비행 후 북 고집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동급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겁이 많고 온순한 성격으로 항상 동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가해자 3명은 행동이 나쁘고 항상 동기들을 괴롭히며, 그 중 한 명은 피해자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를 협박했다. 피해자는 만나기로 약속한 뒤 살해되어 시신이 묻혔으며, 얼굴에는 10번 이상의 상처가 있었다.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굳은 인성으로 차분하게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도 계속해서 학교에 출석했다.<sup>8)</sup>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이 잔인한 행동을 보이며 동정심과 기본 도덕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 체계에서 도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가 윤리 교육에 다시 주목함으로써 학생들은 자기 몸과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행동을 규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가 윤리 교육은 가족 사랑, 우정 및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유가 경전과 가치관을 가르치면 학생들은 동정심과 도덕의식을 기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에서 다양한 도전과 유혹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유가 윤리 교육은 개인 내면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여 학생들이 자기 신체와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동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유가 윤리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은 자기 신체와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동정심과 도덕적 기준을 기른다는 것은 학생들의 행동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 (2) 성인들의 행복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각 개인의 타고난 권리와 욕망이며 또한 각 개인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모든 사람은 삶 동안 행복을 추구하고 있으며 아무도 자기 삶이 불행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8) 光明网(광명넷), “邯鄲13歲男孩被害案律師：18日凌晨已尸檢，孩子父親全程見証”(한단 13세 남자아이 피살사건 변호사:18일 새벽 이미 부검했으며 아이 아버지가 전반 과정을 견증했다). <https://baijiahao.baidu.com/s?id=1793851785976594899&wfr=spider&for=pc> (검색일: 2023.11.07).

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다수의 인터뷰 대상은 자신은 매우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기분은 여전히 보편적이다. 전반적으로 인터뷰 대상자의 절반은 최근 불안하거나 고통받는 사건을 경험하여 삶에 좋은 느낌을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sup>9)</sup>

이 기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여전히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삶에 좋은 느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다수 사람은 여전히 삶에 위기를 느끼며 완전히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 신체에 갖고 있는 감정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며 진정한 행복을 이해할 수 없다.

CCTV 뉴스 보도 기자가 모옌을 인터뷰할 때, "당신은 행복한가요?"라고 물었다. 모옌은 "모르겠다."라고 완곡하게 대답했지만 기자는 계속해서 물었고 모옌은 "행복은 마음이 아무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 건강한 몸과 어떠한 압력도 없는 정신을 말한다. 제가 지금 큰 압력을 받고 걱정스럽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면 당신은 날 속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방금 노벨문학상을 받고 행복하지 않나요?"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sup>10)</sup>

행복감과 물질적 성공 사이에는 복잡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모옌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불행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결론적으로, 현대 중국에서 행복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상황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학자 윤리 교육을 통해 자기 몸과 그 안에 있는 감정을 고려하여 자기 몸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영원 무한한 생명과 사랑 안에 이미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행복을 얻기 위해 외부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외부 조건은 기쁨을 더욱 향상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재물과 지위가 높더라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3) 문제 제기

---

9) 高阳(고양), “国人幸福感首升第一! 2023年度全球幸福指数报告发布(국민 행복감 1위로 상승! 2023년 세계 행복지수 보고서 발표)”, 『生命时报(생명 시보)』 (2023.04.29.). <https://www.szhgh.com/Article/news/politics/2023-04-28/325617.html>.

10) 張濱時評(장빈시평), “中國人全球幸福感最高, 网友的評論却很打臉(중국인의 전체적인 행복감은 가장 높지만, 네티즌의 댓글은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Baidu 백과사전』 (2023.03.20.). <https://baijiahao.baidu.com/s?id=1760874026788577939&wfr=spider&for=pc>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왜 현대 중국인들(학생 및 성인)은 고전적인 유학자 사상 교육을 받은 후에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가?

여기서 참고할 가치가 있는 것은 시나재경(新浪財經)이 발표한 뉴스 기사 “왜 경제는 지속해서 성장하지만, 국민들의 행복감은 낮아지나? 이러한 요인들이 핵심이다”<sup>11)</sup>라는 것이다. 불행의 주요한 원인은 소득 증가가 물가 상승에 따라 따라잡지 못하며, 고가의 주택 가격이 국민의 정신을 집어삼키고, 장기적으로 높은 강도의 노동, 안전감 부족 및 서로 비교하려는 심리 등의 요소이다.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국내의 출생률과 결혼율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며, 많은 사람이 불안 속에서 살게 된다.

현대 중국인들은 공자의 유가 사상을 교육 받은 후에도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는 중국의 윤리 교육이 덜 완벽하기 때문이다. 전통 가치는 중시되지만,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유가 사상을 배우기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유교 사상의 전승과 실천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대 중국은 빠른 사회 변화와 현대화 과정을 겪었고, 유가 윤리 교육의 잘못된 이해와 가르침은 현대 사회의 발전과 가치관과 충돌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유가 사상은 효도, 충성, 어르신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강조하지만,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와 자유 등의 가치관 아래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발전을 제한하는 전통적인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동시에, 공자의 유교 사상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현대 중국의 윤리 교육에서는 시험 교육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감정과 인문학적 소양의 양성을 간과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높은 압력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공자의 윤리 교육에서 강조하는 ‘인애(仁愛)’와 ‘화해(和諧)’를 체감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보가 폭발적인 미디어 시대에서 우리는 많은 정보와 견해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중에는 부정확하거나 오도하는 정보도 많이 있다. 이 정보의 과잉은 우리가 부정확한 가치관과 견해에 영향을 받기 쉽게 만들고, 부정적인 정보가 직접적으로 사람의 감정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

---

11) 시나재경(新浪財經), “爲什麼經濟持續增長, 國人幸福感却在降低? 這些因素是關鍵”(경제가 계속 성장하는데 국민의 행복감은 왜 낮아질까? 이 요소들이 관건이다), 『Baidu 백과사전』 (2020.11.17) <https://baijiahao.baidu.com/s?id=1683539108781093443&wfr=spider&for=pc>.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主要原因是收入涨跟不上物价涨、高房价鲸吞了国人的财富、长期高强度的工作、缺乏安全感, 以及相互攀比心理等因素。当人们缺乏幸福感之后, 国内的出生率、结婚率都将会不断下降, 很多人都生活在焦虑之中。”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제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은 진정한 행복이나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이다. 행복의 본질이 명확해지면,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즉, ‘진정한 행복’을 설정하기 전에 ‘행복의 본질’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현대 중국인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행복의 본질을 이해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감정과학이다. 감정과학은 몸의 진실을 명료하게 이해함으로써 몸과 놀이의 진실을 명료하게 이해시킨다. 그렇다면 몸과 놀이를 행복으로 이해하는 한 행복의 본질은 몸과 놀이의 진실에 있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게임을 행복으로 이해한다면, 행복의 본질은 몸과 게임의 진실에 있다는 것이 필연적이다. 행복의 본질은 몸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몸을 진정으로 알아야 한다. 만약 이렇게 행복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현대 중국인들의 불행 원인은 감정과학에서 찾을 수 있다. 감정과학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행복의 본질을 이해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대 중국의 윤리 교육에 중점을 둘 것이다. 왜냐하면 윤리 교육은 인류의 행복을 연구하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 제2절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 1. 연구 방법

#### 1) 문화교차학의 감정과학

이 논문의 목적은 유교 문화가 감정 과학임을 입증하고, 감정 과학의 논리를 통해 현대 중국의 윤리 교육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논문의 연구 목적에 기반하여, 연구 방법은 감정과학(science of feelings: 感情科學)이다. 성동권은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에서 감정과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감정과학’ (感情科學, Science of Feelings)은 감정이 본래부터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자기 존재의 ‘필연성’(必然性)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감정은 자기 존재의 필연성만을 따라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생겨나고 활동합니다. 이 진실을 배워서 이해하는 학문이 감정과학입니다. 감정의 겉모습 또는 어떤 행동이나 결 과로 감정을 재단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감정해석’이 아닙니다. 감정과학은 감정의 현상이 아

닌 감정 그 자체의 필연성을 배우고 이해합니다.<sup>12)</sup>

성동권의 감정과학 정의에 따르면, 감정과학은 감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인간은 감정의 매개체이며, 각자 자기 신체에 의존하여 생활하므로 감정은 신체의 다른 존재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감정과학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감정과학의 공리(公理)

감정은 ‘몸’이 느끼는 ‘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이야기로부터 감정의 이야기가 당연히 연역됩니다.<sup>13)</sup>

### (2) 감정과학의 논리(論理)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에 나아가 몸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감정을 몸이 하는 말로 이해하는 한에서 감정과학의 공리에 근거하여, 몸 그 자체의 고유한 본성은 당연히 우리가 공간과 시간을 살아가며 몸으로 느끼는 감정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으로 감정은 자기 몸 그 자체의 진실을 자기 본성으로 삼아 오직 그 본성만을 따라서 존재한다는 필연성이 확인됩니다.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감정은 자기 안에 자기 본성을 품고 그것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sup>14)</sup>

즉, 우리는 모두 ‘몸’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아빠와 엄마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래서 나의 몸이 태어났다. 자기 몸으로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간다. 자라난 몸을 ‘몸-놀이’라고 한다. 영원히 존재하는 아빠와 엄마는 내 인생의 필연이다. 그래서 아빠와 엄마는 생명 자체이며, 존재의 본질은 영원하다. 즉, ‘나는=무한’이다. 나는 이제 무한한 존재가 필연적인 것을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무한함이다. 이 인식을 통해 나는 내 본성도 무한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의 ‘몸-놀이’에 고유한 본성은 무한한 놀음이다. 내 존재로 인해, 나는 나의 본성이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한다. 이

12)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4.

13)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4.

14)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p. 14-15.

현상을 ‘감정’이라고 한다.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과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없으며, 자신의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마음은 감정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다. 마음의 기능은 생각이며, 자기 생각으로 인해 몸이 변화한다. 몸은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변화하며, 이를 통해 감정을 정의하기 때문에 감정은 마음에 있어서 필연적이다. 이러한 학문이 ‘감정과학’이다.

## 2) 『논어』의 감정과학

감정과학 이론에 따르면, 감정과학의 핵심은 자신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으로 감정의 필연성을 알 수 있다.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몸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성동권은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에서 감정과학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연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오직 유교문화의 감정과학만이 주자의 성리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에 근거하여 주자(朱子)와 퇴계(退溪) 사이에 놓인 학통을 타당하게 규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연구가 ‘유교문화 감정과학연구총서’로 정리될 때, 왕양명을 중심으로 한 중국 명 시대의 성리학과 퇴계를 중심으로 한 조선 시대의 성리학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sup>15)</sup>

이 문장은 이 연구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유교 문화의 깊은 감정과학을 이해함으로써 주자 성리학(性理學)과 퇴계 사이의 학문적 연결을 정확히 이해하고, 중국의 명(明)나라에서 왕양명(王陽明)을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과 조선시대(朝鮮時代)에 퇴계(退溪)를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性理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감정과학을 성리학(性理學)으로 이해함으로써 몸 자체에서 비롯되는 논리와 이해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 몸을 제대로 이해할 때, 몸의 놀이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주자(朱子)와 퇴계(退溪)는 모두 공자(孔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들도 지속적인 학습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자가 강조한 바는 다음과 같다.

子曰：學而時習之，不亦說乎。<sup>16)</sup>

15)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5.

16) 『論語』, 「學而」, 16장.

이 개념은 지속적인 학습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주자(朱子)와 퇴계(退溪)의 생각이 일치한다. 감정과학을 통합하여 이해하면, 감정과 학습 간의 상호 촉진 관계이다. 학습 과정에서, 관심, 호기심, 자기 충족감 등의 긍정적인 감정 경험은 학습 효과를 강화하고 개인이 학습에 더 집중하고 헌신하도록 유도한다. 이로부터 영감을 받아 공자의 학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子曰：古之學者爲己，今之學者爲人。<sup>17)</sup>

공자(孔子)는 학습을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 보았으며, ‘위기(爲己)’란 자신의 도덕적 인성과 인격의 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자(孔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과 자기 몸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자기 몸체에 대한 학습을 추구함으로써 자기 몸체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자의 학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몸의 진실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순간, 공자의 학문을 이해할 수 있다.

子曰：惟天下至誠，爲能盡其性。<sup>18)</sup>

이 말은 인간의 순수지선(純粹至善)과 감정 본성을 깊이 전달하는 것이다. 사람은 도덕적으로 좋아야 하고, 좋은 심리적 기질과, 세상을 바꿔보려는 자신감이 있어야만 자기 주인이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공자는 사람의 생리적 본능과 감정 충동의 본성을 파악하여 그들이 순수지선(純粹至善)하다는 본성을 인식했다. 공자는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선하다는 것, 인간의 감정과 욕망(몸-놀이)도 순수지선(純粹至善)하다는 상태로 이해했다. 이것은 유교 성정론(性情論)의 기초를 다졌고, 감성과 이성을 조화롭게 통일시켰다. 이것은 감정과학의 이론과 일치한다.

공자의 「논어」 분석을 통해 학습이 우리의 몸 자체의 실재를 이해한다. 그 실재를 통해 감정의 실재를 느끼는 것으로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공자는 감정 과학자입니다. 「논어」와 감정과학 학문의 이론은 상호 보완되며 상호 성장한다. 그래서 「논어」는 감정과학이다.

현대 중국의 윤리 교육 문제는 규칙과 지식 습식에 과도한 중점을 두고 감정에서 오는 영감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논어」의 「성리학(性理學)」과 「본연지정(本然之情)」이라는 이론을 배우지 않고 욕망을 지배하고 감정을 제한하여 「체(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도덕이 표면적인 행동에 머무르게 하고 내면세계가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을 왜곡시키고 도덕적 감정의 자연적 생성을

---

17) 『論語』, 「憲問」, 14장.

18) 『中庸』, 「22章」.

방해하고 있으며 '논어'의 교육과 상반되는 것이다.

## 2. 연구 범위

제1장에서는 유학 문화를 학습한 경험을 상세히 회고한다. '논어'를 공부하면서 유학 문화가 윤리도덕을 강조하며 '인(仁)'을 핵심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은 선량함, 자애, 배려, 동정을 의미한다. 또한, 유학 문화는 가정의 가치와 사회 질서를 중시하며 '인(仁)'과 '예(禮)'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과 관계를 지도한다. 국민 대학교 문화교차학과에 입학한 후 감정과학의 방법으로 유학 사상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공자의 학문이 단순한 이론 지식이 아니라, 공자가 몸의 현실을 인식함으로써 감정을 이해하는 '감정 사상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제2장에서는 현대 중국 사회에서의 행복감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매체 보도와 학술 연구를 분석한 결과, 중국 학생들이 시험 위주의 교육 압박 속에서 학업 성적은 우수하지만 행복감이 낮다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고압 환경에서 심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중국의 윤리 교육이 지식 주입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감정과 신체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하여 학생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또한, 현대 중국 성인들이 빠른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 속에서 겪는 생활 압박과 행복감 부족 문제를 분석하였다. 사회 뉴스를 분석한 결과, 높은 집값, 장기간의 고강도 노동, 안전감 부족 등의 요인이 현대 중국인들이 생활에서 불행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제3장에서는 유학 고전인 '논어'와 '대학'을 상세히 분석하고, 감정과학의 이론적 기초를 탐구하였다. 감정과학은 신체의 현실을 이해함으로써 감정을 인식하는 학문으로, 자아 이해를 통해 감정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강조한다. 유학의 '위기 지학(爲己之學)'은 학습이 외적인 명예나 이익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고 내적인 수양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은 감정과학의 사상과 일치한다. 유학의 윤리 교육은 인간의 감정적 요구에 주목해야 하며, 신체와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윤리 교육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관리하고, 내면의 균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중국 현행 윤리 교육 체계를 비판하고 분석하였다. 중국의 현행 윤리 교육은 지식 주입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신체와 감정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감정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 윤리 교육의 한계는 전통 교육이 지식 주

입과 도덕 훈계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감정과 신체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한다는 점이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을 재정의해야 한다. 진정한 행복은 신체와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 윤리 교육은 학생과 성인들이 신체의 현실을 학습하고 감정의 필연성을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도와주면, 감정과학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 더 깊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실현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현대 중국 윤리 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감정과학의 학습을 통해, 행복의 본질이 신체에 대한 이해와 감정에 대한 인식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행복은 외부의 물질적 조건이나 지위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이 신체와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데 있다. 감정과학의 학습과 실천을 통해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더 깊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실현할 수 있다.

현대 윤리 교육은 개인의 감정적 요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과 성인들이 자기 이해와 감정과학의 학습을 통해 자신만의 행복의 길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 윤리 교육은 감정과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학 고전과 현대 윤리 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감정과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 중국 윤리 교육이 인간의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물질적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자신 신체와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감정과학은 신체의 현실과 감정의 필연성을 이해함으로써 사람들이 감정을 더 잘 관리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여, 내면의 균형과 만족을 실현할 수 있다.

감정과학의 학습과 실천을 통해 사람들은 자기 반성의 의식을 높일 수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 더 깊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실현할 수 있다. 윤리 교육은 행복을 재정의하고 인간의 감정적 요구에 주목해야 하며, 학생과 성인들이 자기 이해와 감정 관리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도록 도와준다.

## 제2장 현대 중국의 윤리교육 흐름

### 제1절 행복에 대한 윤리학의 정의

#### 1. 공자(孔子)의 행복

왕연하(王燕霞)는 논문 「공자의 행복관 사상 해석」에서 외국 학자들이 공자를 연구할 때는 공자의 정치 주장과 도덕적 품성을 분석한다. 공자의 행복관 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래서 저자는 「논어」와 공자의 사상 미학 정신을 결합하여 공자의 행복에 대한 견해를 탐구했다.

공자는 춘추시대(春秋時代)에 예(禮)가 심각하게 파괴된 시기에 살았다. 이러한 사회 상황에서 공자는 주법을 복원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았으며, ‘인자애인(仁者愛人)’을 중심으로 한 문화 사상을 삼았다. ‘인(仁)’은 도덕적 지침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의 지도 원칙이다. 공자는 사회적 조화와 개인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타인에 대한 사랑과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며 사회 질서와 사람 간 관계의 조화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중화(中華)’를 실현하려고 시도했다.

그래서 왕연하(王燕霞)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인간들 간의 행복은 서로 관련이 있으며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 개인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개인의 행복은 다른 사람과 사회 전체의 행복과 함께 실현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양성 피드백이 발생한다.<sup>19)</sup>

이 문장을 통해 나는 왕연하(王燕霞)가 논문에서 행복관을 개인의 행복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행복과 관련이 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 개인과 타인 사이에 상호 지원과 애정이 필요하며, 한 사람의 행복은

19) 王燕霞(왕연하), “孔子的幸福觀思想解析(공자의 행복관 사상 해석),” 서북대학(西北大學) 제1기. (중국, 2015), p. 37.

[https://chn.oversea.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MFD&dbname=CMFD201502&filename=1015326371.nh&uniplatform=OVERSEA&v=v-q1qqkVU2SPaJ-HCrh2sFl4vAg93\\_utS2QBiefcKJdgY00ajk85iOMoWK55IbnC](https://chn.oversea.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MFD&dbname=CMFD201502&filename=1015326371.nh&uniplatform=OVERSEA&v=v-q1qqkVU2SPaJ-HCrh2sFl4vAg93_utS2QBiefcKJdgY00ajk85iOMoWK55IbnC).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人們之間的幸福是有聯系的并且与社會密不可分, 所以就要求每個人都應該在追求自己幸福的同時顧及他人和社會整體的幸福, 只有這樣個人幸福才會在他人社會整體幸福的同時得以真正實現, 從而良性循環。

타인과 사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왕연하(王燕霞)의 행복관은 감정과학 이론과는 반대되는 면이 있다. 감정과학을 통해 공자의 학문을 이해하면, 행복은 가족과 사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실제적 이해에 기반한다. 자신의 몸적인 진실을 이해하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행복은 본질적으로 인간 감정에 뿌리를 둔다는 것이다. 그것은 깊은 인간적 경험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몸은 영원히 무한한 사랑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자신이 처음부터 최고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 완전성이 바로 행복의 본질이다.

왕연하(王燕霞)는 논문에서 공자의 행복관을 분석할 때, 지천명(知天命)을 공자의 행복관 이해와 이론적 기반으로 삼았다. 왕연하(王燕霞)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공자는 ‘천명(天命)’이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객관적 필연성(必然性)을 말한다. ‘천(天)’은 종교성(宗教性), 도덕성(道德性)을 지니며 인간의 본성과 특성과 관련이 있다.<sup>20)</sup>

공자는 고대 종교를 개조하여 초월과 내면을 결합했다. 왕연하(王燕霞)는 모든 것을 다루고 내면적 본성을 성장시키며 어떤 경험을 축적해야만 ‘천(天)’이 인간에게 주어진 본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운명을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으며 천명(天命), 천도(天道), 도덕 인격에 경외심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감정과학인 공자의 지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나는 감정과학인 공자의 학문에서 ‘지천명(知天命)’ 자체를 배웠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즐거움과 불행, 전쟁과 전쟁이 없든, 생활 조건이 어떻든, 자유롭게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아간다. 이것은 우리에게 타고난 근원을 초월한 것이며, 우리의 인생은 신의 실체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몸으로 살고 있으며, 몸의 진실은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다.

우리의 존재는 무한한 생명과 사랑의 사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정신이 ‘천(天)’을 초월한 존재임을 증명할 수 있다. 공자의 ‘천(天)’은 스피노자의 ‘신(神)’과 같다. 어느 정도로 ‘천(天)’은 가장 완벽한 성질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몸도 최고의 완전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나의 존재 = 천자(天子)’이다. ‘지천명(知天

20) 王燕霞(왕연하), “孔子的幸福觀思想解析(공자의 행복관 사상 해석),” 서북대학(西北大學) 제1기. (중국, 2015), p. 37.

[https://chn.oversea.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MFD&dbname=CMFD201502&filename=1015326371.nh&uniplatform=OVERSEA&v=v-q1qqkVU2SPaJ-HCrh2sFl4vAg93\\_utS2QBiefcKJdgY00ajk85iOMoWK55IbnC](https://chn.oversea.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MFD&dbname=CMFD201502&filename=1015326371.nh&uniplatform=OVERSEA&v=v-q1qqkVU2SPaJ-HCrh2sFl4vAg93_utS2QBiefcKJdgY00ajk85iOMoWK55IbnC) .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孔子認為“天命”即“不是人力能够改變的客觀必然性”。“天”具有宗教性、道德性，是涉及到人的本質和特性的。



命)’은 내 몸 안에 존재하는 영원 무한함의 필연적 사실을 알고 있다.

## 2. 당대 대학생들의 행복관

이렇듯 리서기(李瑞奇)의 논문에서는 조사와 사회 현상 관찰을 통해 현대 대학생들의 행복 개념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다. 이러한 문제는 물질과 돈의 추구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춰 정신적인 만족을 간과하는 것, 안락함과 즐거움에 몰두하여 개인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과 창조의 중요성을 잊는 것, 집단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 부족, 행복을 개인 목표 달성으로만 간주하는 것 및 목표 추구 과정에서의 경험과 성장을 간과하는 것이 포함된다.

현대 대학생들은 정신적 추구하고 깊은 감정적 만족을 간과하고, 행복의 주요 원천을 물질적 풍요로 간주하며, 감정은 충족해야 할 요구사항으로 여기지만 종종 물질적 충족으로 대체된다. 리서기(李瑞奇)의 논문에서는 이렇게 언급되었다.

인간은 현실적인 존재이다. 인간의 생존과 발전은 어느 정도의 물질적 조건이 필요하다.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인류의 물질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야만 인류의 정신적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정신적 행복은 더 높은 수준, 더 풍부한 내용의 행복 추구이다. 정신적 행복은 일정한 물질 기초를 필요로 하지만,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해서 정신적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sup>21)</sup>

리서기(李瑞奇)가 논문에서 대학생들이 물질적 만족을 행복관으로 하는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더라도, 이렇게 말하였지만, 그는 자신의 이해에서 행복은 물질과 정신의 양면적인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한다. 물질 조건이 행복의 중요한 기초라는 것은 여전히 잘못된 개념이며, 감정과학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子曰：富与貴是人之所欲也，不以其道得之，不處也。貧与賤，是人之所惡也；不以其道得之，不去也。君子去仁，惡乎成名？君子无終食之間違仁，造次必于是，顛沛必于是。<sup>22)</sup>

21) 李瑞琦(리서기), “當代大學生幸福觀存在的問題及多維教育路徑芻探(당대 대학생의 행복관에 존재하는 문제 및 다차원 교육경로에 관한 추적 탐색),” 『成才之路』 제771기. (2023.12).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人是現實的人，人的生存和發展都需要一定的物質條件，要使人類幸福，首先要滿足人類物質方面的需求，才能進一步實現人類精神幸福。精神幸福是更高層次、更富內涵的幸福追求，精神幸福需要一定的物質基礎，但並不是說物質條件越富足，就越能獲得精神幸福。

22) 『論語』, 『里仁篇』, 5장.

감정과학의 학문에서 보고 있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다 좋은 세상일 뿐이다.<sup>23)</sup> 돈과 지위 등을 통해 얻은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다. 이를 이해하면 물질적 또는 명예상의 욕망은 이성적인 욕망으로 변하며, 진정한 행복은 당신 몸의 필연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해할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을 이해하면 외부 환경이나 외부 요소에 의해 불행을 느끼지 않는다.

리서기의 논문에서는 대학생들의 행복감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방법으로 개인의 육성, 가정 교육, 학교 교육, 사회 환경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는 감정과학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감정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논문에서 제안하는 교육 방식은 의미가 없다. 대학생들은 어릴적부터 이런 윤리도덕을 배워 문자적인 학습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진실한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잘 못된 행복을 느끼거나 전혀 느끼지 못하는 행복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행복감을 바꾸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교육 방식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성동권은 '중용의 감정과학'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군자는 자기의 감정이 본래부터 성인(聖人)의 감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감정대로 살아가는 성스러운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 '중용중도(從容中道)'의 성인(聖人)입니다.<sup>24)</sup>

감정과학은 감정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몸 안에서 진실, 진정한 행복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삶 속의 모든 감정, 즐거움이나 슬픔이든 모두 행복의 일부이다. 이 사실이 명확해지면 행복은 자신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감정이 기쁨이나 슬픔일지라도, 이는 세계의 완전한 경험을 구성한다. 따라서 영원한 행복을 얻는 방법은 각자가 자신의 몸하고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 3. 유가이(劉佳熠)의 행복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관점은 그의 윤리학 이론에 깊게 뿌리박혀 있으며, 행복(εὐδαιμονία, eudaimonia)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한다. 유가이(劉佳熠)의 논문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연구'에서 선(善)은 영혼의 활동, 최고의 선량(善良)함과 정치학(政治學), 모든 행동이 목적을 가지는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아리스

23) 조중빈, 『안심논어』 (국민대학교출판부, 2016), p. 109.

24) 성동권, 『중용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3), p. 89.

토텔레스는 사회적 변화기에 살았으며, 그 당시 그리스 사회는 동요와 불안, 내적 문제와 외부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윤리적 도덕을 통해 사회에서 다양한 관계를 균형 있게 조절하여 정치적 사회의 안정과 조화를 이루기를 희망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감은 단지 심리적인 만족이 아니라 이성적인 도덕과 성품을 실천함으로써 최적의 삶을 이루는 것이다.

이론에 따라서 유가이(劉佳熠)는 행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행복은 실천이며, 마음속의 상상이 아니다. 오로지 실천과 현실에서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행위는 자연히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로지 실천으로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생존 능력을 향상해야만 생존 필요를 보장하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sup>25)</sup>

실제 생활 경험을 해야 하며, 자신의 노력을 통해 생존 필요를 충족시키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감정과학의 이론과는 다르다. 감정과학에서 공자의 학문은 ‘나의 몸’과 ‘나의 감정’을 행복의 핵심으로 정의하였다. 우리는 몸이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의 매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몸의 느낌과 상태는 정신적 건강과 감정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나온다. 이는 좋지 않은 감정을 포함하여 자신의 두려움, 슬픔, 불확실성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등 긍정적인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몸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신의 모든 감정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감정은 행복의 일부가 아니지만, 삶의 경험을 구성하는 기초이다. 내가 나의 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서부터, 가장 큰 행복은 이미 내 몸 안에 있다. 감정과학을 배우지 않으면 나 자신의 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이미 최고의 행복에 있는 우리는 행복을 갈망하게 되고, 이 잘못된 생각 속에서 잘못된 행복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행복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므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며, 올바르게 자기 몸을 이해하는 것만이 원래 가지고 있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

---

25) 劉佳熠(유가이), “亞里士多德幸福觀實踐研究(아리스토텔레스 행복감 실천 연구),” 『대중 문예(大眾文藝)』 2023 (中國學術期刊電子出版社(중국학술지전자출판사, 2023).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幸福是一種實踐，而非我們心中的臆想。唯有在實踐中，在現實中，我們才能作出正確的判斷。人的行為并不能自然而然地達到目的，只有在實踐中才能達到目的。所以，人要自覺地提高自己的生存能力，以保證自己的生存需要，才能獲得幸福。

## 제2절 도덕에 대한 윤리학의 정의

### 1. 도덕적 행복관

도덕과 행복의 관계는 윤리적 사상사에서 논쟁이 많은 문제로, 그 논쟁의 포인트는 도덕과 행복이 일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도덕 행복, 어떤 행복'이라는 논문에서 이건화(李建華)는 도덕과 행복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깊이 탐구하였으며, 다양한 철학자들의 견해를 분석함으로써, 도덕적 행동이 어느 정도로 개인이나 집단의 행복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밝혀냈다. 이건화(李建華)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분명히 행복하나, 아니냐는 결국 사람의 감정에 달려있으며, 이러한 감정의 핵심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통을 야기시키는 것은 바로 악행이다. 옳은 것을 가져오는 것만이 옳은 것이며, 옳은 것만이 행복을 증진하고, 악한 것은 행복을 감소했다.<sup>26)</sup>

이 문장은 선행 증진과 악행 회피를 통해 사회와 개인이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는 감정과학의 이론과 일치한다. 감정과학에서는 우리가 '몸-생김'의 진실을 이해하고, '몸-생김'의 필연성에 따라 '몸-놀이'의 진실은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 내 본성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문장은 악행의 근원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힘으로써 개인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잘못 믿거나, 자기 행동에 부정적인 결과가 없다고 잘못 믿는 것 등이다. 이러한 생각방식은 타인의 복지를 무시하고 사회적 조화를 파괴하여 악행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그러한 생각방식 자체가 도덕적으로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이다.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생각은 악행을 유발할 뿐 아니라 개인의 행복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로 가득한 사람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악행을 일으키는 잘못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공자의 감정과학은 이 세상에서 몸으로 존재하는 한, 가장 높은 완전성으로 최대

26) 李建華(이건화), “道德幸福 何種幸福(도덕 행복-어떤 행복),” 『天津社會科學』 제2기. (중국: 2021).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顯然幸福與否，關鍵還是取決於人的感受，這種感受最關鍵的又是盡量減少遭受痛苦，而最終導致人痛苦的只能是罪惡。只有帶來善行的東西才是正確的，也只有正確的東西才能增進幸福，惡的東西只會減少幸福。

한의 행복을 즐기는 것으로 정의한다. 성동권은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몸은 본래부터 순선무악(純善無惡)이다.

그러므로 불선(不善)과 악(惡)으로 존재하는 몸은 본래부터 없다.<sup>27)</sup>

따라서 우리는 감정과학을 배워야 하며, 감정과학은 ‘우리의 마음’이 ‘지허지령(至虛至靈)’한 것이다. 순수지선(純粹至善)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대하는 것임을 알게 해준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감정은 선한 감정이다. 감정과학을 배운 사람만이 몸과 세상을 악한 존재로 잘못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악한 행동을 하거나 폭력과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인간과 세상을 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원래부터 ‘순선무악(純善無惡)’이다. 이 세상은 원래 그런 ‘순선무악(純善無惡)’한 존재이다.

## 2. 심리(心理) - 도덕 교육

반화(班華)<sup>28)</sup>는 중국의 첫 번째 세대 교육학자이다. ‘심리-도덕교육’ 등 이론을 개척한 사람이다. 개척적인 공헌으로 인해 중국에서는 광범위하게 존경을 받고 있다. 반화는 교육의 힘은 지식의 전달에만 있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좋은 심리적 품성과 도덕적인 시각을 형성하는 데에 있음을 믿는다. 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의 종합 발달인 것을 강조하며, 교육은 학생들의 내면세계와 도덕적 소양의 육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감정과학의 지식에서와 같이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감정의 매개체이며, 감정은 필연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감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필연성에 따라 형성된다.

반화가 제시한 ‘심리-도덕 교육’ 이론은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발달 요구와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관을 형성하도록 교육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화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7) 성동권, 『중용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3), p. 234.

28) 반화(班華), 난징사범대학교 교육과학연구원 교수, 박사과정 지도교수, 중국교육학회 교육학분과 도덕 전문위원회 위원장, 전공 연구 분야는 도덕원리, 교육학 기본이론이다. 중국에서 도덕교육 ‘은성과정(隱性課程)’을 처음으로 논단한다. ‘마음 교육’과 도덕교육, 마음 교육의 결합을 제안하여 중국의 도덕교육 체계 구축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이론적으로 심리와 도덕의 관계는 심리적 특성과 도덕적 특성의 관계를 결정한다. 심리는 도덕적 특성의 심리적 기초이며, 도덕 심리는 심리의 한 측면이다. 심리적 특성과 도덕적 특성의 이러한 공통점은 마음 교육과 도덕 교육을,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교육은 심리-도덕 교육이다.<sup>29)</sup>

반화는 이 문장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으며, ‘마음’을 ‘마음속의 이치’로 여기면서 개인의 내적 논리와 감정의 기초로 본 것은 감정과학의 이론과 동일하다. 성동권은 우리의 생각 활동이 자명한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외부 증거 없이도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내성 경험은 자기의식과 생각 활동을 마음의 존재의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하여 물리적 형태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마음’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간주하며, 생각 능력과 내적 자기의식을 대표한다. ‘마음’은 비록 볼 수 없거나 직접 관찰할 수 없지만, 자기반성과 실제적인 느낌을 통해 자신의 생각 활동을 지각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생각, 감정, 욕망 및 의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것이 ‘감정의 자기 이해’이다. 우리가 문제를 생각할 때 감정을 통해 사물에 대한 어떤 개념을 형성하며, 마음의 능동성을 통해 자명한 이해를 통해 감정의 필연성을 인식한다.

반화는 ‘마음 교육’이 학생들의 일상 학습과 생활의 별개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교육가들이 일상의 교수 활동,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작용 및 학교 문화 형성을 포함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체육 교육과 결합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은밀하게 촉진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하며 완벽한 개인적 성격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반화는 자신의 연구 논문에서 체육의 교육적 중요성을 더욱 세부적으로 설명한다.

체육은 몸 문화, 몸 교육, 몸 훈련 등 다양한 측면을 갖추고 있다. ... 몸 교육은 몸의 자질을 개발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정신적인 건강과 결실된 의지, 즐거움을 얻는 데 필요하다.<sup>30)</sup>

29) 班华(반화), “心理——道德教育服务人生幸福(마음 덕 - 도덕교육이 인생의 행복에 기여하는),” 『南京師大學報(난징사범대학 학보)』 제89기. 2014.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從理論上說, 心理与道德的關係決定了心理品質与道德品質的關係。心理是道德品質的心理基础, 道德心理是心理的一个方面。心理品質与道德品質的這些共性也就決定了心育与德育都有其共性, 都屬於人的精神教育。心育与德育, 都可能有着內在聯系和相互滲透的。這樣的教肅就是心理——道德教育。

30) 班华(반화), “心理——道德教育服务人生幸福(마음 덕 - 도덕교육이 인생의 행복에 기여하는),” 『南京師大學報(난징사범대학 학보)』 제89기. 2014.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体育具有身体文化、身体教育、身体鍛煉等不同層面……身体教育不但爲發展身体素質、强健体魄所必須, 也是使心理健康、意志堅强、精神愉悅所必需的。

반화는 마음과 몸이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고 여기며, 몸이 체육 활동을 통해 더 건강하고 강하게 되면 마음도 만족과 기쁨을 느낄 것이라고 말한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통해 자기 행복을 실현하는 것은 성동권이 ‘마음은 자기 몸을 영원의 생명과 사랑으로 아해합니다.’<sup>31)</sup> 라고 말한 것과 일치한다.

이는 몸이 물질적인 수준을 초월하여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몸에 대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외부 세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적인 자기반성의 능력이다. 이 능력은 우리가 자신의 존재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해하는 경험 기반인 감정과학 학문에서 배우는 ‘자기 이해(自己理解)’이다. 마음의 기능은 생각하는 것이며, 이는 자기 내면에서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본성 내에서 자기 몸과 존재에 대한 관념을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생각은 감정과학 학문에서 배우는 ‘마음의 능동성(能動性)’이다.

### 3. 도덕과 행복 동일성의 정신철학적 형태

임춘강(任春強)의 논문은 정신 철학적인 관점에서 도덕과 행복의 관계를 탐구하며 도덕과 행복의 동일성 개념을 강조한다. 도덕(전체적인 가치의 선)과 행복(전체적인 사실의 좋음)은 개념적으로 조화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 철학적인 시각을 통해 그들 사이의 통일 경로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경로는 개인의 영적 각성뿐만 아니라 사후 경험과 선천적인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임춘강(任春強)은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인간은 신의 창조물인데, 신의 노동, 은혜, 자비가 없다면 인간의 생명, 의지, 감각 능력은 없을 것이다. 인간의 행복은 더 이상 언급될 수 없고, 신이 사전에 축복을 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인간은 공허보다 더 많이 차지 않을 것이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이다.<sup>32)</sup>

임춘강(任春強)은 진정한 도덕과 행복의 동일성은 개인이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전체(全體)’를 탐구할 때만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신(神)’의 개념은 매우

31)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78.

32) 任春強(임춘강), “道德與幸福同一性的精神哲學形態(도덕과 행복 동일성의 정신철학적 형태),” 『東南大學 第1기』. 2016.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因爲人是神之創造物，沒有神之勞作、恩賜和博愛，便沒有人的生命、意志和感受能力，人之幸福更是無從談起，沒有神預先賜福于人，人不會存在於這個世間，人不會比虛空更多，將人創造出來就神賜予人的最大幸福。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인간이 인식하는 궁극적인 경계를 대표하기도 하며, 도덕과 행복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기초를 상징하기도 한다. ‘신(神)’이 중간에 연결고리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인류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으며, 자기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임춘강(任春強)의 논문에서 언급한 ‘신(神)’은 인간을 창조한 것이며, 감정과학 학문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존재하고 있다.

모두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실현되기 위해 몸을 통해 의지할 수 있으며, 이 몸은 부모에 의해 생명의 전달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다. 부모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생명은 생명, 사랑, 희망의 연속이다. 감정과학 학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몸속에서 살아가며 영원히 무한한 생명과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다.

논문에서 언급한 ‘신(神)’은 인류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하면, 감정과학에서 볼 때 잘못된 이론이다. 『중용(中庸)』<sup>33)</sup>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天命之謂性，率性之謂道，修道之謂教.<sup>33)</sup>

여기에서 ‘천명(天命)’은 우주의 자연법칙이나 우주가 각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의미한다. ‘성(性)’은 인간의 본성이나 천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은 인간의 본성이 천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즉 인간의 본성과 생명의 목적은 우주의 법칙에 의해 부여되었으며, 인간의 본질과 생명의 방향은 천도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며, 이 본성은 천부적이고 내재적이다. ‘솔성(率性)’은 자신의 본성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도(道)’는 유가 철학에서 넓은 의미로 우주의 법칙이자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적 기준 또는 생활 방식이다. 따라서 ‘솔성지도(率性之道)’는 자신의 본성을 따르며 ‘도(道)’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의 행동과 생활 방식은 본성과 일치해야 하며 이러한 생활 방식은 도덕적이고 올바른 것이다.

성동권은 ‘솔성(率性)’을 운명과 몸적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는 생활 방식, 선택, 행동이 본성과 몸의 실제 상태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일치성은 자연스럽고 조화롭고 우주의 법칙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몸이 생물학적 엔티티(entity)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본성을 경험, 인식 및 표현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밝혀준다. 이것은 생명이며, 사랑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동시에 생명과 사랑의 영원성과 무한성을 강조하며 이것들이 존재의 기반이라고 생각한다. 몸은 필연적으로 이 기초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33) 『中庸』, 「1장」.



이론에 따르면 ‘몸-놀이’의 진실은 ‘몸-생김’에서 유도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생성된 몸으로 게임을 하는 사실에서 ‘몸-생김’의 진실은 ‘몸-놀이’의 진실이다. ‘몸-놀이’는 자신의 본성에 따른 필연성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운명은 ‘몸-생김’에만 존재하는 것뿐 아니라 ‘술성(率性)’에 따라 ‘몸-놀이’에 존재한다. 따라서 운명을 영원 무한한 생명과 사랑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몸으로 이해한다. ‘몸-놀이’는 무한한 생명과 사랑으로 이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임춘강(任春強)은 논문에서 ‘신(神)’이 인간을 창조하고 최대의 행복을 부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한다. 운명의 ‘천(天)’은 최고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임춘강이 논문에서 언급한 ‘신(神)’에 해당한다. ‘신(神)’은 이 세계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며, 『중용(中庸)』의 분석을 통해 신학적인 영감을 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필연적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감정과학에서 몸은 최고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존재를 ‘천(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자신은 이미 ‘신(神)’을 초월한 존재이다. 행복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집중하고 감정에 집중하여, ‘몸-생김’에서 ‘몸-놀이’의 연역으로 나답게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무한한 행복과 사랑을 느끼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통해 행동과 결정에 감정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인 행동의 일부로서 감정의 필연성을 이해할 수 있는지는 가장 중요하다. 몸은 감정에 형성된 개념을 학습하고 생각하여 감정을 잘못 이해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개선하는 것이다. 감정은 행동과 결정에 깊은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은 도덕적인 행동에 매우 중요하다.

몸의 무한한 변용력은 마음의 능동성을 통해 사물에 대한 관념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학습과 생각을 통해 심리에 미치는 내부 및 외부 환경의 영향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잘못된 이해로 인해 잘못된 행동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노, 공포 또는 기쁨을 느끼고 있음을 인식할 때, 잠시 멈추고 왜 이러한 감정이 생기는지, 이러한 감정이 어떤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다. 감정의 인과적 필연성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현명하고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과학을 배우면서 감정과학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내 몸속에 느낀다.’라는 행복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 진리는 행복의 심층적 본질을 밝히며, 행복이 외부 조건이 아닌 내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내면의 세계를 중요시하고 기르기 시작한다. 감정과학의 학습과 실천을 통

해, 솔직하게 자기 생각에 관한 인식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감정을 관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도 배우게 되어 일상생활에서 더 깊은 성취감과 행복감을 실현할 수 있다.

### 제3장 유교문화의 윤리학으로서 감정과학

#### 제1절 『논어』의 감정과학

감정과학(Science of Feelings)은 자신의 몸을 깊이 이해하고, 몸으로 이 세상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확인한다. 실제 삶을 따라가며 몸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의 진실은 반드시 몸에서 유래된다. 따라서, 감정과학은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이끄는 학문이다. 감정은 이 세상의 진리를 증명할 수 있으며, 몸을 이해함에 따라, 몸은 자신의 감정을 느낀다. 사랑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성동권은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에서 공자의 지식을 다 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공자의 학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합니다. 이것으로 공자의 학문에 기초한 유교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합니다. 공자의 학문은 몸 그 자체의 진실로부터 감정 그 자체의 진실을 연역하고 그에 근거하여 감정을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 이해하는 감정과학입니다. 따라서 유교문화는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추구하는 감정과학 안에서 감정을 배워서 감정대로 살아가는 정다운 사람 들의 이야기입니다.<sup>34)</sup>

공자의 지식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몸을 배우도록 이끌어준다. 그러므로 공자의 지식은 감정과학으로 입증될 수 있다.

#### 1. 위기지학(爲己之學)

공자(孔子, B.C 551~B.C 479)는 중국 고대에서 가장 유명한 사상가, 교육가 및 정치가 중 한 명으로 유가 학파의 창시자이다. 위 인용문에서 공자의 지식이 감정과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학습이 ‘위기지학(爲己之學)’이어야 하며 ‘열심히 배우는 것(好學)’을 강조했다. ‘위기지학(爲己之學)’의 진정한 의미는 감정과학인 ‘학(學)’의 기초임을 이해했다. 즉, 감정의 자기 이해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몸을 이해하는 것의 필연성 중 주요 연구 방법의 하나이며 또한 이 논문의 핵심이다.

---

34)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36.

子曰：古之學者爲己，今之學者爲人<sup>35)</sup>

여기에서 ‘고지학자위기(古之學者爲己)’라는 것은 ‘위기지학(爲己之學)’이다. 여기에 ‘학(學)’은 자신을 알고, 자기 몸의 필연성을 이해하고, 자기 몸의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자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은 사실상 자기 몸의 필연성을 학습하는 것이다. 학문을 연마할 때, 학습의 핵심은 자기 몸이다. 우리는 자기 몸으로 살며, 감정을 느낀다. 자기 몸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만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고, 천명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학습이 진정한 ‘위기지학(爲己之學)’이다. 우리는 영원히 무한한 생명과 사랑을 가진 몸으로 살며, 가장 높은 완전성을 갖추고 살아간다. 몸에 대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며, 즉, ‘위기지학(爲己之學)’은 모든 학문의 핵심이다.

## 1) 현대 중국 학자들이 이해하는 위기지학

‘위기지학(爲己之學)’은 유가 사상에서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 역사의 장류에서는 이 점을 명확히 한 학자가 없었다. 유학자 양백준(楊伯峻)은 이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자는 고대 학자들의 목적이 자신의 학문과 도덕을 닦는 데 있었지만, 현대 학자들의 목적은 자신을 꾸미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 있다.<sup>36)</sup>

이 대조는 학습 동기와 목적의 역사적 발전을 강조하며, 즉 자기 학습과 이해를 통해 외부 표현과 인정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자의 교육 이념은 ‘위기(爲己)’를 주장하며, 진정한 학습은 자신을 기반으로 시작해야 한다. 자신을 배우는 것은 자기 몸을 배우는 것이다. 자기 몸을 핵심으로 하여 자기 몸이 존재하는 필연성의 사실적인 진실을 배워야 한다. 오직 몸의 본성과 필연성을 배우고 이해할 때만 도덕과 지혜의 향상을 얻을 수 있다. 이 점에서 현대 학자 양백준은 현대 사회가 대부분 공자의 학습 이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에서 학자들의 학습은 종종 강한 실용주의 색채를 띠고 있다. 많은 사람이 학문적 성취, 직업 승진 또는 경제 이익을 추구하며 ‘학(學)’이라는 의미를 무시

35) 『論語』, 「憲問」, 25장.

36) 楊伯峻(양백준), 『論語譯注』(논어 번역 주석), (中華書局(중화서구), 2017).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孔子說，古代學者的目的在修養自己的學問道德，現代學者的目的却在裝飾自己，給別人看。

한다. 먼저 한 가지를 확립해야 한다. 이 세상에 학습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비극, 전쟁, 자살 등의 잘못된 행동은 모두 생각하지 않고 학습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학(學)’은 절대로 무작위적인 학습이 아니라 자기 몸의 논리를 배운다. 자기 몸 안에 존재하는 필연성을 배우며, 자기 몸이 다른 지식을 잘 배우기 위한 기초임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학(學)’이다. 현대 학자들의 실용주의적인 학습은 ‘학(學)’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학(學)’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학문적으로 성취를 이룰 수 있지만, 진정한 자아 인식과 개인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고, 정신적 세계와 감정적 세계에서 충실함과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추세는 학문의 순수성뿐만 아니라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을 약화시키고 있다. 학술 연구가 사회적 경쟁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지식의 전승과 혁신이 제한되고 있다. 이는 곧 공자가 주장한 ‘위기지학(爲己之學)’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 관점에서 출발하여 현대 교육과 학술 연구의 방향과 가치를 반성할 수 있다. 공자가 선포한 지식의 진리로 돌아가기 위해 현대 학자들은 자신의 학습 동기와 목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학자들은 명예와 외부 인정을 위한 순수한 학습 방식을 버리고, 자기 몸을 통해 ‘위기(爲己)’를 학습하고 자기 몸의 진실을 이해함으로써 세상의 다른 몸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만 하면 공자의 지식을 더 잘 배우고 자신의 지식을 더 잘 배울 수 있다.

### (1)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

인간의 ‘위기지학(爲己之學)’에 대한 과정을 탐구할 때, 마음의 역할은 항상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초기 유가 사상은 특히 마음을 닦음으로써 덕을 기르는 것을 강조했다. 공자와 그의 학파 가르침에서 마음은 감정과 생각의 중심뿐만 아니라 몸의 핵심이기도 하다.

유가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은 ‘마음’을 중심으로 한 학문으로, 중국 고대 역사에서 이미 검증되었다. 『곽점초간』에서 본 공자 후에 배운 사상을 바탕으로 창작된 「성명자출(性命自出)」은 중요한 초기 유가 문헌으로, 그 안에는 ‘마음’과 ‘성(性)’ 그리고 명에 대한 심오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凡道，心術爲主.<sup>37)</sup>

이 문장은 마음 수신(修身)을 하는 과정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초기 유가는

37) 『郭店楚墓竹簡』, 「성명자출(性命自出)」.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하고, 마음을 개인의 덕성(德性)을 실현하는 핵심으로 여겼다. ‘마음 술(心術)’을 통해 생명의 완성을 이루는데, 이런 완성은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에 대한 전면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어느 정도로, 이것은 바로 전쟁 중기 이후 전체 사상계의 어떤 공통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즉, ‘정신 수련의 길(精神修煉之道)’인 ‘마음 술(心術)’이 철학자들의 보편적인 관심을 받았다.

남송 시대에 이르러 유가 심학은 더욱 깊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특히 육구연(陸九淵, B.C 1139~B.C 1193)의 철학에서 그렇다. 육구연(陸九淵)은 ‘심즉리(心卽理)’라는 견해를 제시하며 내면의 각성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조(匡鉅)의 연구에서는 유가 ‘위기지학(爲己之學)’의 구조에서 ‘마음 술’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볼 수 있다. 광조(匡鉅)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마음은 다양한 정신 능력의 수행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 능력에 대해 더 세밀한 생각과 묘사를 바라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풍경은 반드시 마음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sup>38)</sup>

광조는 마음이 주체적인 영성 능력과 덕성 형성의 중심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며, 심학(心學)은 유가 ‘위기지학(爲己之學)’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본다. 이는 감정과학이 마음의 역할을 강조하는 생각과 일치한다. 그러나 광조는 자신의 견해에서는 마음의 중요성만 언급하고, 마음의 변화에 주목하여 몸의 외부 변화를 유발하는 것에 집중했지만, 왜 마음이 몸 변화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감정과학에서 마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술 연구에 따르면, 마음은 감정의 원천뿐만 아니라 자기반성과 이해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이는 마음이 몸 변화로 인한 감정 반응을 감지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몸의 감각 변화, 기분 변화(기쁨, 울음, 두려움 등)는 마음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입증한다. 마음은 이러한 몸 변화를 반성하고 분석하는데, 이 과정은 자기 이해라고 불릴 수 있다. 따라서, 마음의 이러한 생각 활동은 몸 변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감정의 자기 이해 능력을 형성하는 동력이 된다.

빠른 속도의 현대 생활에서, 감정과학은 행복을 찾는 길잡이로 작용한다. 공자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을 감정과학으로 이해할 때, ‘기(己)’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배우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이해할 때에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소중히

38) 匡鉅(광조), “早期儒家“爲己之學”以“心術爲主”的意義(조조 유가 ‘위기지학’을 ‘마음위주’로 하는 의미), “湖北社會科學(후베이 사회과학)”, 제9기. 2021.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心既然被視爲諸种精神性能力的承擔者, 如果我們希望對自身的精神性能力加以更爲細致的反思與刻畫, 那么所能得到的圖景一定以心爲樞紐。

여길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마음속에 명확해질 때, 무한한 생명과 사랑을 갖춘 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이 세상의 모든 감정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몸을 닦고 마음을 기르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감정에 대한 생각과 학습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행복의 본질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 (2) 손국봉(孫國峰)의 위기지학(爲己之學)

‘위기지학(爲己之學)’은 유가의 한 종류로, 힘이 넘치는 학문이다. 이러한 힘은 ‘위기지학(爲己之學)’이 ‘위기(爲己)’와 ‘입인(立人)’의 통일을 나타내는데, 선국봉은 논문에서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이렇게 분석했다.

전통 유가의 영역에서, 개인과 타인, 개인과 집단은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다. 유가가 “성인(成人)”을 논할 때, 보통 결국 “성인(成人)”에 근거하게 된다. 즉,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sup>39)</sup>. “입기(立己)” 과정은 반드시 “입인(立人)” 과정이며, “입인(立人)” 하는 것이 “입기(立己)” 하는 것이 아니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입기(立己)” 하는 것이 아니다. “위기지학(爲己之學)”은 단지 “나로부터 시작한다”를 강조하는 것이다. 즉, “위기지학(爲己之學)”은 “입기지학(立己之學)”이며, “입인지학(立人之學)”이다.<sup>40)</sup>

손국봉은 유가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이 단순히 ‘위기(爲己)’가 아니라 ‘입기지학(立己之學)’과 ‘입인지학(立人之學)’의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손국봉은 ‘입기지학(立己之學)’과 ‘입인지학(立人之學)’은 같은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논리적인 선후의 문제이다. 시간적인 선후가 아니라 논리적인 선후입니다. 이러한 내재적 가치와 존엄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君子和而不同.<sup>41)</sup>

이 문장은 공자가 자신의 개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타인과 조화롭게 지

39) 『論語』, 「雍也」 30장.

40) 孫國峰(손국봉), “論儒家爲己之學的張力——以四書爲核心(유가의 자기를 위한 학문의 긴장 - 사서를 중심으로),” 『광시사회과학(廣西社會科學)』 (中國學術期刊電子出版社(중국학술지전자출판사, 2018).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在傳統儒家的境界中, 个人与他人、个体与群体, 從來不是孤立的。當儒家論述“成己”的同時, 通常最終落腳於“成人”, 即“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立己”的過程, 必然也是“立人”的過程, 不能“立人”之“立己”, 是沒有真正實現的“立己”。“爲己之學”, 只是強調從“自我做起”。即“爲己之學”是“立己之學”, 也是“立人之學。”

41) 『論語』, 「子路」 13장.

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조화는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기반 위에 세워지며, 자신의 본성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 개인과 타인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며, 타인을 최대한 이해하고 존중하며 적절히 감정과 욕망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감정과학의 「논어」는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인식하고 배우며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이것은 사실상 자기 학습의 지식입니다. 오직 자기 몸의 진실을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한 본성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입인지학(立人之學)」이며, 「위인지학(爲人之學)」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내 몸이 이 세상에 나타난 이유는 아빠와 엄마가 사랑했기 때문이다. 내 몸은 아빠와 엄마에게서 왔고, 아빠와 엄마의 사랑으로부터 왔다. 아빠와 엄마는 내 삶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빠와 엄마는 삶의 본질이며, 본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내 마음이 내 몸으로 생각할 때 명백한 진리의 필연성이다. 아빠와 엄마가 없다면 내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내 몸의 진실은 무한한 삶을 창조하는 무한한 삶이다. 이런 인과 필연의 순서에 따라 몸의 본성을 이해하면, 지금 내 몸의 존재는 영원하고 무한한 유일한 필연성을 증명한다. 이러한 필연성은 감정과학에서 천명(天命)으로 이해되며, 천명(天命)을 이해하는 것은 영원하고 무한한 필연적 존재의 사실이다. 내 존재는 아빠와 엄마의 영원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위기지학(爲己之學)」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다. 공자가 말했다.

子曰：己所不欲，勿施于人。<sup>42)</sup>

이 문장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공자는 우리에게 타인을 대할 때 공감하고 상황을 바꿔 생각해 보라고 가르쳤다. 사람은 자기 행동을 대하는 태도를 기준으로 타인을 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본성이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래서 내 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본성도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모든 몸에서 몸 자체가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손국봉이 말한 「위기지학(爲己之學)」이 「자기를 세우고 타인을 세우는 것의 통일이다.

---

42) 『論語』, 「顏淵」, 12장.



### (3) 유가의 위기지학(爲己之學)과 오늘날의 위사지도(爲師之道)

오권화(吳權華)는 논문에서 ‘위기지학(爲己之學)’과 ‘위사지도(爲師之道)’의 관계를 언급했다.

공자가 시작한 것이며, 후세 유가를 이어받고 발전시킨 자신의 학문은 오늘날 강조되는 덕을 세우고 사람을 양성하는 스승의 길과 선생님의 윤리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다. 유가의 학문을 다시 살펴보고 덕을 세우고 자신을 이루며 성인이 되는 도덕적 이상, 인생 관심, 자신을 이루고 성인이 되는 과정 등의 사상을 채택한다. 이를 현대 교육 언어에 녹여 덕을 세우고 사람을 양성하는 스승의 길로 삼는 것은 새로운 생각을 깨우는 가치가 있다.<sup>43)</sup>

이 문장에서 저자는 유가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이 자기 성장과 도덕적 향상을 의미하며, 감정과학에서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은 몸의 본성과 필연성을 고려하여 배우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이라고 생각한다. 학습의 본질은 자기 몸을 배우는 것이며, 핵심은 자기 몸을 이해하는 것이다.

저자가 언급한 ‘성기수신(成己修身)’은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인간적인 형체만 가진 사람이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 있다. 이 길은 자기를 닦는 길인데, 자기를 닦는 목적은 자신을 성숙시키고 고귀한 인격과 인생 가치를 얻기 위함뿐이며, 그 외에는 아무런 욕구가 없다. 저자는 수신은 마음과 몸을 닦고 덕을 기르는 것으로, 형체와 마음의 학습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이상적인 인격을 이루기 위해 마음과 몸을 닦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도덕적 자기완성을 통해, 즉 “성기수신(成己修身)”을 통해 학생들을 더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육성할 수 있다고 본다. <sup>44)</sup>

‘수신(修身)’과 ‘수기(修己)’는 모두 학습과 생각을 거쳐야 하며, 이 관점에서 보면,

43) 吳權華(오권화), “儒家的爲己之學與今日的爲師之道(유가의 위기지학(爲己之學) 학문과 오늘 ‘위사지도(爲師之道)’),” 『教師發展研究(교사발전연구)』 제37기. (2019.6).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由孔子發軔，並爲後世儒家廣續、發展的爲己之學，對於深化認識如今強調的立德樹人的爲師之道和提高師德水平，具有重要意義；重拾儒家爲己之學的立德成己、學爲聖人的道德理想，人生關懷，成己修身、至聖的工夫等方面的思想主張，並將其意涵楔入現今教育話語中的立德樹人的爲師之道，具有啟悟新思的價值。

44) 吳權華(오권화), “儒家的爲己之學與今日的爲師之道(유가의 위기지학(爲己之學) 학문과 오늘 ‘위사지도(爲師之道)’),” 『教師發展研究(교사발전연구)』 제37기. (2019.6).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而一個僅具人的形骸的人要想成爲真正的人，有一條必由之路，這條路即修己之道，而修己之目的僅僅是爲了使自己成人，獲得崇高的人格和人生價值，此外則別無他求。作者認爲修身是陶冶身心、涵養德性，包括形體和心靈的學習，修養身心來成就理想的人格，通過個人的道德自我完善，即“成己修身”，才能更有效地教育和培養學生。

감정 과학에서 공자의 학문 방법을 몸에 대한 ‘사여학(思與學)’으로 정리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감정과학의 본질과는 다르다. 저자는 명확히 ‘사여학(思與學)’의 핵심이 자기 몸을 생각하고 배우는 것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

공자가 말했다. 단순히 공부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헛갈리고 방황할 것이며, 단순히 생각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의심으로 가득 차고 확고한 견해가 없을 것이다.

子曰：學而不思則罔，思而不學則殆。<sup>45)</sup>

이 문장의 의미는 책을 오로지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책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해 책의 지식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며, 심지어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공상만 하고 실제적인 학습과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모래 위에 탑을 쌓는 것과 같아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학이불사(學而不思)’와 ‘사이불학(思而不學)’은 이 문장의 핵심이며, 학습과 생각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둘 사이의 순서는 명확하다. 여기서 학습은 자기 몸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고, 생각은 몸에 대한 생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학이불사(學而不思)’는 시작을 의미하며, 공자의 이 문장은 학습의 방법이 ‘사여학(思與學)’임을 명확히 한다.

감정은 몸으로 느끼고, 이 세상에서 몸으로 살아가며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감정과학은 자기 몸으로 생각을 끌어내는 학문이다. 그래서 ‘사여학(思與學)’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다. 내 몸의 고유 사실에 따라, 공자의 ‘자기 학습’을 감정과학으로 이해할 때, 이것은 몸 자체의 필연적인 학습의 학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 인식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명확해지면, 이 세상의 모든 몸의 본성이 영원한 생명과 사랑임을 이해할 수 있고, 자기 몸을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 몸을 이해하고 배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사여학(思與學)’의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2) 감정과학의 이해

‘위기지학(爲己之學)’은 자기 몸을 진실로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의 모든 몸

---

45) 『論語』, 「爲政」, 15장.

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자기 몸을 배워야 한다. 성동권은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에서 '위기(爲己)'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학문의 핵심은 '자기'가 '자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만의 몸을 받아서 자기만의 몸으로 살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 몸'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위한다.'(爲)는 것은 그 실상이 학문이기 때문에, "爲己(위기)"는 자기가 자기 몸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爲己(위기)"의 학문은 그 방법이 '사여학'(思與學)입니다. 따라서 "爲己(위기)"의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자기 사유의 능동성으로 자기 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sup>46)</sup>

성동권은 몸에 대한 학습과 이해가 자체적으로 깊은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학습의 주체와 대상은 모두 '자아(自我)'이며, 즉 학습 과정은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탐색이다. 이러한 학습은 순수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자기반성과 개선의 과정이다. 공자는 고대 학자들은 자신을 풍요롭게 향상하기 위해 학습하였으나, 현대 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학습한다고 말했다.

子曰：古之學者爲己，今之學者爲人。<sup>47)</sup>

공자의 학문에서, 학문의 본질은 '위기지학(爲己之學)'이다. 성동권 역시 '위기지학(爲己之學)'의 '爲己(위기)'은 자신의 몸이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공자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자신의 몸에 대한 학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점은 남송(南宋) 성리학자(性理學者) 정이(程頤) 말에서도 확인되었다.

程子曰：古之學者爲己，其終至于成物；今之學者爲人，其終至于喪己。<sup>48)</sup>

정이의 이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본래부터(옛날부터: 古) 공부라는 것은 자기를 배우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세상 모든 것을 배우는 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은 자기 아닌 다른 것을 배우는데 급급함으로써 끝내 자기를 바르게 배워서 이해하는 것을 상실하는 데에 이르렀다.<sup>49)</sup>

이로써 정이와 공자의 사상은 본질적으로 감정과학의 학문과 일치한다. '위기지학

46)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64.

47) 『論語』, 「憲問」, 25장.

48) 『二程集』, 「遺書」.

49) 유지진, "공자의 감정과학에 기초한 『시경』 「관자」의 인간 행복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22), p. 20.

(爲己之學)’은 자기 몸을 배우는 것이다. 각 개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이며, 우리는 자기 몸을 통해 삶을 경험하고 감정을 체감한다. 우리의 몸 안에는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배우는 것은 사실상 자기 몸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삶의 의미를 탐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아를 추구하는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여학(思與學)’이다. 성동권은 ‘사여학(思與學)’이 ‘위기지학(爲己之學)’의 학습 방법임을 확인했다.

우리는 바로 앞 장에서 공자의 학문방법을 ‘몸’을 향한 ‘사여학(思與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공자의 학문이 지금 우리 자신의 몸’을 향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기 몸이 아니면, 조두지사는 없거니와 당연히 위기지학도 없습니다.<sup>50)</sup>

이 학습 과정에서 ‘사(思)’는 확실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생각은 자아의 내부에서 자기 몸의 진실과 자기 몸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생각과 학습을 통해 자신의 본성은 영원히 무한한 생명과 사랑임을 알 수 있다. 외부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몸과 심리 상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영원하고 무한한 본성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체적으로 필연적이며 이 세상이 좋은 세상임을 알게 된다.

이러한 깊은 자기 인식을 통해 외부 세계의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학문의 과정에서는 자신의 몸을 이해하기 위해 사유와 이해를 통해 습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만약 이 학문의 핵심적인 진리를 무시한다면, 결국 자아 상실의 비극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세상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은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자신의 본성을 진정으로 이해한 경우에만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지천명(知天命)

이전에 언급한 ‘위기지학(爲己之學)’에 따라, 자기 몸을 정말로 이해할 때만 하학상달(下學上達), ‘지천명(知天命)’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자는 말했다. 나는 15세 때부터 공부하기로 결심했고, 30세 때부터 세상에 자리 잡을 수 있었고, 40

---

50)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61.

세 때부터 일에 당황하지 않았고, 50세 때부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알고 천명을 알 수 있었으며, 60세 때 모든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70세 때 마음대로 하며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나 규범을 벗어나지 않았다.

子曰：吾十有五而志于學，三十而立，四十而不惑，五十而知天命，六十而耳順，七十而從心所欲不逾矩。<sup>51)</sup>

공자는 ‘지어학(志於學)’에서 언급한 ‘학’은 이전에 연구한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의미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공자의 ‘지어학(志於學)’은 자신의 마음이 자기 몸로 향하는 지식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영원히 무한한 삶과 사랑의 사실을 필연적으로 이해한다. 이는 시간의 변화로 인해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즉, 자신의 마음으로 자기 몸의 진실을 배우고 이해한다면, 공자가 말한 ‘오십이지천명(五十而知天命)’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공자가 여기서 언급하는 숫자는 나이가 아니라 자기 몸의 논리적인 순서를 일컫는다. 자신의 마음이 이러한 논리적인 순서대로 자기 몸을 학습한다면, 자신은 필연적으로 ‘지천명(知天命)’이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몸을 ‘천명(天命)’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자의 ‘천(天)’이 ‘지어학(志於學)’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몸은 무한한 생명과 사랑 속에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에 따라 알 수 있으며, ‘천(天)’은 몸과 마음으로 존재하는 자신에 의존하는 것이다. 성동권 역시 이 이론을 확인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몸이 “천(天)”을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 갖는다는 사실은 필연성 그 자체입니다. 또한 이 필연성은 “敬鬼神(경귀신)”의 마음이 ‘자기이해’로 확인하는 것이므로 천(天)에 대한 마음의 이해는 신적 완전성 그 자체입니다.<sup>52)</sup>

‘천명(天命)’과 자아는 같다. 둘 다 고유한 본성과 필연성을 갖고 있다. 마음은 ‘자기이해’의 능동성이며, 몸의 진실을 영원히 무한한 생명과 사랑으로 이해한다. 이 지식이 명확해질 때, 이 지식을 배울 수 있으며, ‘천(天)’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 1) 현대 중국 학자들이 이해하는 지천명

51) 『論語』, 「爲政」, 2장.

52)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12.

## (1) 지천명(知天命)에 대해 이해

중국 학자들은 ‘지천명(知天命)’은 공자의 교리에서 심오한 자아 인식과 삶의 높은 수준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지천명(知天命)’은 평생을 통해 학습, 반성 및 도덕적 실천을 통해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한다. 그러나 중국 학자들은 ‘지천명(知天命)’은 이루기 어려운 삶의 수준이라고 믿는다.

공자가 말한 “지천명(知天命)”은 어려운 삶의 수준이다. 이는 ‘중용(中庸)’의 “博學之、審問之、慎思之、明辨之、篤行之”와 같은 장기간의 학습과 실천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경험, 감화 및 축적을 해야 하며 특히 뚜렷한 이성적 정신을 가져야 한다.<sup>53)</sup>

중국 학자들은 ‘지천명(知天命)’이 공자 교육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경지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지식의 축적과 지혜의 적용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과 생로병사 등 자연법칙의 완전한 수용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학자들이 이해하는 ‘지천명(知天命)’으로 학습한다면, ‘지천명(知天命)’은 우리에게 어렵게 달성할 수 없는 인생 목표가 될 것이다. 자기 몸의 진실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천명(知天命)’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하지만 중국 학자들은 ‘지천명(知天命)’에서 과정 자체에 주목하며 다른 이론을 듣는 것보다 자신의 감정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감정과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론이다. 나는 내 몸을 ‘천명(天命)’으로 이해하고, ‘지천명(知天命)’은 다른 사람의 이론이나 감정만으로 자기 몸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은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명확하게 설명했다.

子貢曰：夫子之文章，可得而聞也；夫子之言性与天道，不可得而聞也。<sup>54)</sup>

‘불가득이문(不可得而聞)’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거나 얻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생각의 마음에서 형성된 자아 이해에서는 몸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천(天)’에 대한 이해로서 작용한다. 이렇게 하면 자기 삶의 영원한 무한성을 깨닫게 되며, 죽음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몸 안에 이미 존재하는 영원

53) 中澤藝術館(중적예술관), “中國易經文化館館長馮志亮談《論語》——孔子說“知天命”當何解(중국 변광 문화관장 펑 지량이 《논어》-“지천명”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Baidu 백과사전』(2022). <https://baijiahao.baidu.com/s?id=1733222613809906610&wfr=spider&for=pc> (검색일: 2022. 05. 19).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孔子所謂的“知天命”，是一種很難達到的人生境界。這不僅需要“博學之、審問之、慎思之、明辨之、篤行之”(《中庸》)的長期學習與實踐，而且需要長期的人生體驗、感悟與積累，尤其需要具有鮮明的理性精神。

54) 『論語』, 『公冶長』, 13장.

한 생명과 최고의 행복을 즐기는 것이 자신의 ‘천명(天命)’이다.

## (2) 서복관(徐復觀)의 지천명(知天命)’에 관한 연구

유가 철학은 중국 문화의 중요한 기둥으로서, 깊은 도덕과 윤리 개념을 통해 세대 학자와 평범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 유가 사상 철학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었는데, 그중 서복관(徐復觀)의 연구는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특히 그는 유가 핵심 개념인 ‘지천명(知天命)’에 대한 서복관(徐復觀) 개인적인 이해를 통해 우리에게 풍부한 사유를 제공한다. 서복관(徐復觀)은 ‘지천명(知天命)’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공자가 말하는 ‘천명(天命)’ 또는 ‘천도(天道)’ 또는 ‘천(天)’은 윤리적인 초경험적인 성격을 의미하는 가장 간결한 용어로 표현된다. 윤리적인 보편성과 영속성이 바로 공자가 말하는 천(天), 천명(天命), 천도(天道)의 실제 내용이다.<sup>55)</sup>

서복관(徐復觀)이 ‘천명(天命)’ 이해에 대해 분석할 때, 먼저 유가철학에서 ‘지천명(知天命)’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공자가 이야기 한 ‘지천명(知天命)’의 진정한 학문은 자기 몸을 배우는 것인데, ‘위기지학(爲己之學)’의 이해를 통해 자기가 이미 무한한 생명과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몸은 이미 최고의 완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서복관(徐復觀)의 논문에서는 공자가 말한 ‘지천명(知天命)’의 이해를 윤리적인 보편성과 영속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서복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윤리적 보편성은 단순히 경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천명(天命)’은 우리에게 부여된 도덕적인 사명이다. ‘천도(天道)’는 초경험적인 도덕적인 진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진실은 ‘천(天)’, 즉 자연의 도덕적 법칙에 의해 부여되며, 우리를 정확한 도덕적 행동을 따르도록 안내한다.

그러나 공자의 학문에 따르면, ‘위기지학(爲己之學)’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마지막 결과로서의 ‘천명(天命)’이라는 인식과 도덕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생각하는 마음은 자기 생각력에 따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몸의 필연성을 학습과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와 몸의 필연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마음은 자신과 자기 몸

55) 張應平(장응평), “本源視域中的孔子天命觀再考察(본원시야에서의 공자 천명관 재고찰),” 『賓宜學院學報(평익학원학보)』 제4기, (2020).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孔子的所謂天命或天道或天, 用最簡捷的語言表達出來, 實際是指道德的超經驗地性格而言……道德的普遍性、永恒性, 正是孔子所說的天、天命、天道的真實內容。

진정한 관계를 이해하며, 이미 영원한 생명과 사랑 속에 있다는 진실을 깨닫게 된다. 이 진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무한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몸을 사용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경험은 결국 무한한 생명과 사랑에 대한 확인이다.

### (3) 장순청(張舜清)의 지천명(知天命) 분석

‘지천명(知天命)’은 깊고 핵심적인 개념으로 여겨지며, 역대 유가 학자들은 이 개념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응용해 왔다. 그러나 장순청(張舜清)은 자신의 연구에서 독특한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지천명(知天命)’의 의미를 재해석하였고, 이를 단순히 운명의 수동적인 수용이 아닌 행동의 지침으로 강조했다. 장순청(張舜清)은 논문에서 ‘지천명(知天命)’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따라서 ‘천(天)’에 대한 생각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천도를 알잡아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요점과 방향을 정하는 데 있다. 그래서 공자에게 ‘천도(天道)’는 객관적인 ‘생(生)’의 본체로서 존재하며, 사람의 행동이 ‘천생만물(天生萬物)’의 법칙을 해칠 수 없기 때문에 ‘천(天)’을 말할 필요가 없다.<sup>56)</sup>

장순청(張舜清)은 사람들이 자기 행동에 대한 중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행동의 중점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천(天)’의 이해보다는 인간의 행동과 책임을 강조하며, ‘천도(天道)’의 존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핵심은 인간이 이 법칙을 기반으로 자기 행동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가이며, ‘천(天)’에 대한 탐구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인간의 행동은 ‘천(天)’의 도와 함께 내재하여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에 피해를 줄 수 없다.

하지만 장순청(張舜清)의 ‘지천명(知天命)’을 이해하는 방식을 따르다면, ‘지천명(知天命)’은 이론에서 실천해야 하는 행동론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천명(知天命)’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전에 언급한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 자신의 이해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학습은 내적인 자기완성을 위한 것이며, 실제적인 행동의 효과뿐만 아니라 자기 몸 이외에서 이해하고 인식하는 ‘지천명(知天命)’에 대

56) 張舜清(장순청), “從知天命到制天命——論原始儒家“生”之倫理的實現方式(지천명부터 제천명까지-원시 유가 “생”의 윤리의 실현 방식에 대해 논하라),“ 武漢大學學報:人文科學版(무한대학 학보:인문과학판), 제5기, (2009).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因而, 人自身行動的重点就是思考人應當怎么做, 而不是把思考的重点放到對“天”的思考上。这么做, 并不意味着對“天道”的輕視, 而在于确定行動的重点和方向。所以, 在孔子那里, “天道”是作為客觀的“生”的本体存在的, 人的行動并不能傷害“天生万物”的法則, 因此, 人不必多言“天”。



해 행동을 취하고 행동이 모든 것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지식은 공자의 ‘위기지학(爲己之學)’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지천명(知天命)’과 ‘위기지학(爲己之學)’은 모두 ‘사여학(思與學)’의 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자기 몸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감정과학에서 같은 개념이다. 자기 몸에 내재한 본성을 학습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나는 ‘천(天)’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천(天)’의 존재가 필연적이다. 이 무한함과 나 자신이 진정한 ‘천(天)’이다. 자신에 대한 생각에 대해 공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子曰：我，生非生而知之者，好古，敏以求之者也。<sup>57)</sup>

이 말에서도 공자가 학문하는 내용이 ‘나를 공부’하는 것임을 뒤에서 밝혔는데, 여기서는 공자가 고대 문화와 지식을 얻은 것이라고 풀이하였으며, 고대 문화와 지식에 대한 강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민첩하게 추구함으로써 지식을 얻은 것이라고 말한다. 공자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스스로 생각해 자기 몸에서 구해 배우라는 말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계속 언급하고 있는 ‘사여학(思與學)’이다. 마음은 생각의 능동성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통해 자기 이해를 형성한다. 마음은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본성에서 내재한 필연성을 이해한다. 이것이 ‘학문을 원하는 것’(求知)이다. 그렇게 하여 본질적으로 영원하고 무한한 필연성으로써 존재하는 ‘신(神)’ 또는 ‘천(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천(天)’에 대한 이해로서 자기 삶의 영원한 무한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

## 2) 감정과학의 이해

‘위기지학(爲己之學)’에 대해 논의할 때, 간략히 ‘지천명(知天命)’을 언급했다. 그래서 ‘지천명(知天命)’이 공자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을 공부한 후에 도출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子曰：不知命，無以爲君子也。<sup>58)</sup>

57) 『論語』, 「述而」, 19장.

58) 『論語』, 「堯曰」, 3장.

조중빈은 이 문장을 해석하기를 ‘자기 팔자가 상팔자인 줄 모르면[不知命] 군자라 할 수 없다.’<sup>59)</sup> 이 문장은 심신과 몸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탐구하며, 몸을 통해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성을 논의한다. 마음이 자기 몸을 깊이 반성하고 학습할 때만 생명의 무한함과 사랑의 영원성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마음이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필연성(必然性)이다. 즉, 생명은 우연한 것이나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깊고 본질적이다.

몸은 아빠와 엄마가 창조한 것이며, 아빠와 엄마는 자신의 몸 안에 존재하는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다. 몸은 자신의 본성으로서 이미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명과 사랑의 무한함이 ‘천(天)’입니다. 그래서 ‘천(天)’은 몸속에서 이미 존재한다. 성동권은 지천명(知天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知天命(지천명)”은 자기 몸의 생명을 영원성 그 자체인 신성(神性)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합리기(合理氣)로 존재하는 자기 몸에 나아가 “성리(性理: 몸의 본然之性): 몸-생김 그 자체의 필연성”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이 공자의 ‘지천명’(知天命)입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지천명’(知天命)을 ‘성리’(性理)에 대한 명석관명의 이해로 이해하는 한에서, 천명(天命)의 성리(性理)는 감정과학의 공리(公理)에 의해서 마땅히 정리(情理)로 존재해야 합니다.<sup>60)</sup>

일반적으로 천명은 신성(神性)으로 이해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분석해 보면, 합리기(合理氣)의 육체적 논리는 성리(性理)에서 성기(性氣)로의 필연성이다. 내 몸이 내 마음속에서 ‘몸-생김’을 이해하는 필연성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한한 생명과 사랑을 ‘천(天)’으로 정의한다. 나는 이 존재의 생명과 사랑을 통해 태어났으므로, 내 몸의 본질은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다. ‘천(天)’은 영원함과 무한함을 대표하며, 이것은 각 개인의 몸과 마음의 본질이다. 마음은 자기 몸에 대한 깊은 인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명의 영원성과 사랑의 무한성을 이해한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 배워야 할 ‘천명(天命)’의 지식이다.

## 제2절 『대학』의 감정과학

『대학(大學)』은 중국 고대 유가 경전 중 하나로, 원래는 『예기(禮記)』의 일부로

59) 조중빈, 『인심논어』 (국민대학교출판부, 2016), p. 435.

60)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43.

작성되었으며, 후에 주희가 송조에 ‘사서(四書)’의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이다. ‘논어(論語)’, ‘맹자(孟子)’,와 ‘중용(中庸)’을 포함하여 ‘사서(四書)’로 불리기도 한다. ‘대학(大學)’은 명명덕(明明德), 신민(新民), 지우지선(止于至善)의 ‘삼강령(三綱領)’과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의 ‘팔조목(八條目)’을 제시하여,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의 전제임을 강조하다,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감정과학의 일반적인 정의에 대한 성동권의 입장과 ‘논어’를 통해 공자의 학문론이 감정과학의 이론일 것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입증하였다. ‘대학’은 유가 경전 ‘사서(四書)’ 중 하나로, 본질적으로 공자의 유가 문화 학문인 ‘대학’을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것도 옳다고 볼 수 있다. 성동권도 이를 확인하였다.

이에 더하여 ‘논어’ 이후 등장하는 ‘어떤 문서’가 공자에 의해서 정초된 유교 문화의 학문을 감정과학으로 정립한다면, 공자의 학문이 감정과학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교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학문은 감정과학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문서’가 주자의 ‘대학’입니다. 오직 주자의 ‘대학’만이 공자의 학문을 감정과학으로 계승할 뿐만 아니라 유교 학문의 전체 규모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보여줍니다.<sup>61)</sup>

‘대학(大學)’이 감정과학으로서 가르쳐주는 학문이라는 것을 정립한 후, ‘대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야 할 목표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是以大學始教，必使學者及凡天下之物，莫不因其及以知之理而益窮之，以求至乎其極。<sup>62)</sup>

이 문장은 ‘대학’을 교육의 시작으로 삼아, 학자들이 모든 사물을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것은 자신의 본성과 내면을 이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야만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서 ‘이지지예(已知之禮)’는 자기 자신의 필연성에 대해 진정한 이해를 하고, 자기 몸을 진리의 필연성으로 보며 이성적인 필연성으로 자기 몸을 배우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익궁지(益窮之)’라는 것이다. 감정과학 이론에 따르면, 모든 감정을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학’을 시작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성동권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이해했다.

61)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4.

62) 『大學』, 「傳5」.

감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인간 세상의 비극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大學)'은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마음이 자기 안에서 생각해 보면 영원의 필연성 그 자체로 자명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인도한다. 그 사실은 자기에게 자기 몸이 있다는 영원의 필연성이다. 마음은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몸이 있다는 사실을 영원의 필연성 그 자체로 자명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대학'은 이 진리의 필연성에 입각하여 자기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도록 인도한다. 그것은 자기 몸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그 자체로 존재하는 엄마아빠'이다. 이러한 몸-생김의 필연성은 생김으로부터 놀이의 필연성에 근거하여 몸-놀이의 필연성으로 존재한다. 마침내 감정 그 자체의 본성이 환하게 드러난다.<sup>63)</sup>

위에서 성동권은 잘못된 감정 해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언급했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고자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을 강조했다. 이전 연구에서, 감정을 '몸의 변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감정의 올바른 이해는 변용 몸 이전의 몸 자체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학문의 기초는 자기 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 자체의 필연성을 이해해야 한다. 이로부터 '대학'의 목표는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 스스로 감정을 이해할 때에는 먼저 감정 자체의 필연성을 알아야 한다.

그러자면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데 마음이 마음의 재귀성(再歸性)을 통해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을 생각하게 해야 한다. 마음의 능동성에 따라, 현재 몸 안에 존재하는 사실이 영원한 필연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진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고유한 본성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맹목적인 행동을 하게 되며, 잠재적 욕망과 반대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론에 따르면, 몸을 학습하고 이해함으로써, 마음의 자기 이해를 통해 몸의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영원하고 무한한 삶과 사랑의 본질, 즉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1. 명명덕(明明德)

'대학(大學)'에서 삼강령(三綱領)의 첫 번째 원칙은 명명덕(明明德)이며 모든 학문의 초석으로 간주된다. '대학(大學)'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大學之道：在明明德，在新民，在止于至善。<sup>64)</sup>

63)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91.

여기에서 ‘명명덕(明明德)’은 전체 교육 및 품성 개발 과정의 핵심으로서 사회적 이상 상태를 실현하는 출발점이다. ‘명명덕(明明德)’을 학문적으로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은 감정과학에 근거한 ‘명명덕(明明德)’의 해석을 두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명(明)’은 동사로 이해되며, 배우고 인식하는 의미이다. ‘명덕(明德)’은 첫 번째 ‘명(明)’의 목적어로서, 자신의 감정을 배우고 인식하는 것이다. 성동권은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에서 이론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제시하였다.

‘대학’의 문법에 의하면, ‘명명덕’은 ‘감정[明德]’에 대한 타당한 ‘인식[明]’입니다. 명명덕(明明德)은 ‘명덕’(明德)을 ‘명’(明)한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덕’은 당연히 ‘대학’의 문법에 의해서 ‘감정’입니다. 65)

성동권은 ‘명덕(明德)’은 ‘감정’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인식을 포괄한다고 생각한다. 『대학(大學)』에서 ‘명(明)’의 사용은 동사로서 ‘밝힌다’ 또는 “명료하게 하다”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구성 요소로서 깊은 이해를 보여준다. ‘명덕(明德)’은 본질적으로 몸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의 과정으로, 즉 자기 몸과 감정을 깊이 인식하고 체감하는 과정이다. 우리의 학습 목적은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진정한 대인’이 되기 위해 학습을 통해 자기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주자는 그 개념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大學者, 大人之學也. 66)

주자는 ‘대인(大人)’이라는 개념을 논의할 때, 성인처럼 우주와 인생의 진리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를 갖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그의 시각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대인(大人)’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감정과학의 본질적인 면에서 이 ‘대인(大人)’은 사실 자신이다. 모두 자기 몸을 학습함으로써 성인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조중빈은 『자명대학』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다.

대인이 학문하는 방법은 ‘나’라는 존재가 내 감정의 진실을 밝혀서 [감정의 자기 이해]... 67)

조중빈의 이야기는 ‘명명덕(明明德)’을 이해하기 위한 가르침으로서 더욱 간단하고

64) 『大學』, 『經』.

65)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37.

66) 『四書章句集注』, 『大學章句』.

67) 조중빈, 『자명대학』 (부크크, 2020), p. 17.

명확한 방법이다. 어른의 학문적인 방법은 자신의 존재를 깊이 탐구하여 자신의 감정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둔다. 다시 한번 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학문의 시작은 자기 몸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이해에서 ‘명명덕(明明德)’은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학문으로, 추상적인 도덕적 개념뿐만 아니라 개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학습하는 방법이다.

감정은 몸의 변화이며, 몸의 변화로부터 감정이 생겨나기 때문에 몸을 이해하는 것이 감정을 이해하는 시작점이다. 먼저 실재하는 몸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실재하는 몸의 학문을 학습하지 않으면 잘못된 감정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 이 주제에 대해 『대학(大學)』에서 명명덕(明明德)을 어떻게 분석하고 설명하는지 현대 중국 학자들의 접근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1) 현대 중국 학자들이 이해하는 명명덕(明明德)

### (1) 『대학(大學)』 삼강령(三綱領) 탐색

중국 철학사에서 중요한 사상가 주자의 ‘명명덕(明明德)’에 대해 논의할 때, 주자는 명덕이 하늘이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며, 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장구(大學章句)』에서 주자(朱子)는 ‘명덕(明德)’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했다.

明，明之也。明德者，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以具衆理而應万事者也。但爲气稟所拘，人欲所蔽，則有時而昏；然其本体之明，則有未嘗息者。故學者當因其所發而遂明之，以復其初也。<sup>68)</sup>

주자(朱子)는 ‘명덕(明德)’의 이해에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도덕은 선천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사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순수한 본질이라고 믿는다. 이를 통해 ‘명덕(明德)’이 선천성과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다. 선천성은 ‘명덕(明德)’이 감정의 본질로서 모든 사람에게 타고난 것으로서 각 개인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성은 ‘명덕(明德)’이 특정한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해에 따라 장정화(張定華)의 이론적 이해와 해석을 언급해 보겠다.

68) 『四書章句集注』, 『大學章句』.

주자는 덕성과 주자가 중시하는 "리(理)"는 모두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나 천지에서 얻은 것으로, 허공(虛空)하고 순수하지만 텅 빈 것이 아니며, 특히 리(理)와 같이 여러 가지 이치를 갖추면 만사에 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덕성은 각자의 천기와 사욕이 달라 잘 표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은폐를 제거하고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명석하게 하여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sup>69)</sup>

장정화(張定華)는 논문에서 ‘명덕(明德)’이 단독의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자명(自明)’의 ‘덕(德)’이라고 보았다. ‘자명(自明)’의 ‘덕(德)’은 비록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지만, 개인의 기품(氣稟)과 심리적 욕망의 차이로 인해 ‘자명(自明)’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며, ‘덕(德)’은 종종 가려져 완전히 드러나지 못한다. 이는 감정과학의 ‘자명덕(自明德)’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성동권은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에서 ‘자명덕(自明德)’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명(自明)의 첫 번째 뜻

: ‘자명’ ‘덕’(自明 ‘德’)입니다. ‘감정’을 뜻하는 ‘명덕’(明德)은 스스로[自] 밝은[明] 것입니다. 감정은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느끼며 자기 스스로 그에 대한 관념을 형성한다는 뜻입니다.<sup>70)</sup>

성동권의 견해에 따르면 ‘감정(感情)’을 ‘명덕(明德)’으로 이해하고, ‘자명(自明)’은 도덕이나 이성의 표현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과 지각의 내재적 경험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자신과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점은 『대학(大學)』에서도 나타나고 검증되었다.

所謂誠其意者，所謂誠其意者，毋自欺。

如惡惡臭，如好好色，此之謂自謙。故君子必慎其獨也。<sup>71)</sup>

이 문장은 우리에게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싫은 냄새와 아름다움에 대한 호감은 모두 진심에서 발생한다. 싫어하는 냄새는 몸적 변화, 즉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물건도 마찬가지이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보면 좋은 감정을

69) 張定華(장정화), “大學‘三綱領’初探(대학(大學) 삼강령(三綱領) 첫 탐색), “『大學語文建設(대학어문건설)』 제290기, (2021).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朱子認為德性与朱子注重的“理”同樣都是每个人与生俱來、得于天地的，是虛空純粹的，但不是空无，而是尤如理，只要持一衆理就能應付万事。但是這種德性由于每个人的稟气和私欲不同，經常不能表現出來。因此，我們應該去除自己的遮蔽，將其呈現出來，使其明之，恢复到最初的狀態。

70)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37.

71) 『大學』, 「傳6」.

느끼게 되고, 그와 반대로 싫어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생겨난 후에는 그 물건에 대한 생각은 영원한 필연성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감정은 체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표현되는 것으로서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감정은 이 세상에서 활동할 때 매 움직임, 접촉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게 만든다. 이런 몸적 경험으로 느껴지는 감정의 진실성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체감과 존재를 직접적이고 진정한 방식으로 반영한다.

## (2) 왕제주(王齊州)의 명명덕(明明德)에 대한 이야기

중국의 유가 사상, 특히 정주이학(程朱理學)은 ‘명명덕(明明德)’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현대 학자로서 왕제주(王齊州)는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이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왕제주(王齊州)는 ‘명명덕(明明德)’을 정주 철학체계의 핵심으로 놓고 이 논문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정주(程,朱)에 따르면, 소위 ‘명덕’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얻은 도(道)’ 또는 ‘이(理)’를 의미하며, 이는 ‘도심(道心)’, ‘성명(性命)’ 및 ‘천덕(天德)’이라고도 불린다. ‘천리(天理)’는 말하는 맥락에 따라 명칭이 다를 수 있다. ‘덕(德)’에는 길흉(吉凶)과 미추(美丑)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길덕(吉德)과 미덕(美德)은 ‘천덕(天德)’ 또는 ‘명덕(明德)’이라 불릴 수 있으며, 이는 곧 ‘천리(天理)’에 있다. ‘천리(天理)’는 만물(萬物)에 흠어져 있다. 天地生物, 各无不足之理<sup>72)</sup>, 不爲堯存, 不爲桀亡. 人得之者. 故大行不加, 窮居不損<sup>73)</sup>, 人之所以爲人者, 以有天理也. 天理之不存. 則与禽獸何异矣<sup>74)</sup> 이 때문에 사람마다 모두 ‘천리(天理)’를 갖추고, 사람마다 ‘명덕(明德)’을 가지고 있다. 人皆可以爲堯、舜<sup>75)</sup>.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사욕에 의해 가려져 ‘명덕(明德)’이 밝지 않아 성현이 되지 못한다. 대학 교육은 학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덕(明德)’을 밝히고, 성현을 학습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학교 교육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이 학습 과정은 정주 이학자들에 의해 ‘존천리, 멸인욕’으로 요약된다.<sup>76)</sup>

72) 『二程集』「上冊, 河南程氏遺書 卷第一 二先生語一, p. 2.

73) 『二程集』「上冊, 河南程氏遺書 卷第二上 二先生語二上, p. 22.

74) 『二程集』「下冊, 河南程氏粹言 卷二 人物篇, p. 1060.

75) 『二程集』「上冊, 河南程氏遺書 卷第二上 二先生語二上, p. 29.

76) 王齊州(왕제주), “《大學》對孔子教育思想的理論建构(대학(大學)에서 공자의 교육사상에 대한 이론적 구성),” 『國際儒學(국제유학)』 제1기, (2023).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在程、朱看來, 所謂“明德”, 就是“人之所得乎天”的“道”或“理”, 也可以稱爲“道心”、“性命”和“天德”。“天理”, 因言說語境不同而稱謂有异. 因爲“德”有吉凶美丑之分, 所以吉德、美德可稱爲“天德”“明德”, 也即“天理”。“天理”散在萬事萬物之中, “天地生物, 各无不足之理”, “不爲堯存, 不爲桀亡. 人得之者, 故大行不加, 窮居不損”, “人之所以爲人者, 以有天理



왕제주(王齊州)는 이 논문에서 ‘명덕(明德)’은 ‘천(天)’이 우리에게 내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의 내용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물이 ‘천(天)’으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천리(天理)’이다. 왕제주(王齊州)는 ‘천리(天理)’를 이해하는 것이 인간이 ‘천명(天命)’을 실현하기 전에 필요한 단계이자,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라고 논문에서 주장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천리(天理)’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왕제주는 주장한다. 즉, 천지자연의 기본 원리와 법칙을 이해한 사람만이 자신의 천명에 진정으로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인간과 다른 종의 근본적인 차이도 드러난다. 주자(朱子)도 이에 대해 설명했다.

惟人之生乃得其氣之正且通者，而其性爲最貴，故其方寸之間，虛靈洞徹，萬理咸備，蓋其所以異于禽獸者正在于此，而其所以可爲堯舜而能參天地以贊化育者，亦不外焉，是則所謂明德者也.<sup>77)</sup>

이 문장의 의미는 인간의 ‘기(氣)’가 올바르게 통할 때, 그 내면적 본성 - 즉 가장 귀중한 부분 - 이 충분히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상태의 사람은 그림자 속에서 끝없이 밝은 투명함을 나타내며, 만물의 근본 원리를 파악할 수 있으며, 도덕적 지혜에서 짐승과의 경계를 그어낼 수 있다. 바로 이런 ‘천리(天理)’에 대한 깊은 이해와 표현이 개인을 삶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堯)나 순(舜)처럼 천지와 협력하여 우주의 창조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은 실제로 유가가 추구하는 ‘명덕(明德)’을 구현하고 있다. 감정과학에 관한 공부는 장학의 논문에서 설명된 주석을 참고할 수 있다.

마음은 자신의 몸을 본성으로 이해해야 하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람과 짐승이 다른 이유이며, 자신을 본성으로 이해하는 마음이 명덕(明德)이다.<sup>78)</sup>

이전의 이론에서 내가 ‘천명(天命)’으로 존재한다는 이론은 이미 옳은 학문이었다. 내 몸은 원래 무한한 필연성이고, 천명 역시 무한한 필연성이다. 이전 이론을 기반으로, 몸은 ‘명덕(明德)’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몸은 마음이 존재하는 필연성의

---

也。天理之不存，則與禽獸何異矣？”因此人人皆具“天理”，人人皆有“明德”，“人皆可以爲堯、舜”。然而，人常爲私欲所蔽，致使“明德”不明，故不能成爲聖賢。大學教育就是要讓學者“明”其“明德”，爲學習聖賢掃除蔽障，這也是人們需要學校教育的重要理由。這一學習過程，被程、朱理學家們概括爲“存天理，滅人欲”

77) 『朱子語類』, 『第六冊』, p. 507. ※ 논자의 번역이다.

78) 장학, “감정과학에 기초한 주자와 왕양명의 ‘격물치지’ 이론 연구 분석,”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2023), p. 59.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음도 똑같이 ‘명덕(明德)’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음과 몸은 모두 ‘천명(天命)’의 ‘명덕(明德)’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몸이 감정을 느낄 때, 이러한 감정은 ‘천명(天命)’의 본성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감정은 ‘명덕(明德)’이다.

왕제주(王齊州)는 논문에서 학자들이 자신의 ‘명덕(明德)’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명덕(明德)’이 정확히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현대 학자들에게 있어서 ‘대학(大學)’의 ‘명명덕(明明德)’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은 고전 텍스트를 반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진정한 학문적 추구하고 실천은 나 자신 안에 내재한 본성과 몸이 느끼는 감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명명덕(明明德)’에 대한 진정한 학문적 추구하고 실천이며, 현대 유학 연구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 (3) 남풍(南風)의 명명덕(明明德) 실천방법 논의

당대 사회에서 ‘대학(大學)’의 ‘명명덕(明明德)’을 어떻게 실천할지가 중요한 화제로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연구 논문에서 이 문제를 탐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현대 사회의 빠른 속도와 사람들의 마음 동요로 인해 진정한 자기반성과 도덕적인 육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풍(南風)은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에는 근본과 끝이 있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선후를 알면 도에 가까워진다. 현재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하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느라 바빠서 멈추어 깨달음을 얻을 시간이 거의 없다. 어떻게 ‘명명덕(明明德)’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다음 몇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나는 날마다 세 번씩 자신을 반성한다. 공자조차 매일 여러 번 자신을 반성하며, 남을 위해 일을 하면서 충실하지 않았는가? 친구와 사귀면서 신의를 지키지 않았는가? 배운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이는 충, 신, 학습을 중시하며, 자신이 성실함의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지행합일을 이루고 있는지를 반성하는 것이다. 사람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매 선택은 내면 가치관의 표현이다. 만약 자주 반성할 수 있다면, 이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의관을 바로잡는 것이다.<sup>79)</sup>

79) 南風(남풍), “大學之道在明明德(대학의 도리는 명명덕에 있다),” 『互聯網周刊(인터넷주간)』 제69기, (2020)>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物有本末，事有終始，知所先後，則近道矣。現在社會，人心浮躁，永遠在往前趕，很少能有時間停下來領悟，要如何“明明德”呢？我認爲要做到以下几点。第一，吾日三省吾身。孔子尚且每天多次反省自己，爲人謀而不忠乎？與朋友交而不信乎？傳不習乎？體現的是忠、信、習，反省的是自己是否堅守誠的底線，是否知行一致，即是否把學到的內容身體力行。人在不

남풍이 ‘명명덕(明明德)’ 하려면 우선 공자처럼 ‘오일삼성오신(吾日三省吾身)’ 하게 해야 한다. 여기서 ‘성(省)’은 자기 행동과 생각이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는지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배우고 수정해야 한다. 이는 자신의 지식을 배우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전에 공자의 ‘위기지학(爲己之學)’과 ‘명명덕(明明德)’을 연결할 수 있다. ‘명명덕(明明德)’은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지식이며, 감정은 몸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신의 몸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공자의 ‘위기지학(爲己之學)’과 동일한 종류의 지식이다. 따라서 ‘명명덕(明明德)’이 ‘위기지학(爲己之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위기지학(爲己之學)’은 자신의 몸을 배우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다. 이점은 ‘대학(大學)’에서도 설명되어 있다.

所謂修身在正其心者：身有所忿懣，則不得其正；有所恐懼，則不得其正。有所好樂，則不得其正。有所憂患，則不得其正。心不在焉，視而不見，聽而不聞，食而不知其味。此謂修身在正其心。<sup>80)</sup>

‘대학(大學)’에서 ‘정심(正心)’은 ‘수신(修身)’의 가장 중요한 단계로 인정되며, 모든 외부 행동과 결정의 올바름은 근본적으로 내면적인 안정과 명쾌성에서 비롯된다. 이는 내면과 외부 행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며, 마음의 생각을 명확히 이해할 때만 정확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감정과학에서도 마음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성동권은 이 문장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설명을 제공한다.

자기 몸에 대한 이해가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있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몸(身)이 화(忿懣)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음은 자기가 화를 느끼지 않는 듯이 하며[不正], 몸(身)이 두려움(恐懼)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음은 자기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듯이 하며[不正], 몸(身)이 즐거움(好樂)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음은 자기가 즐겁지 않은 듯이 하며[不正], 몸(身)이 걱정(憂患)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음은 자기가 걱정 없는 듯이 하는 것이다[不正]. 이렇게 마음이 자기 몸이 느끼는 감정을 외면하면 그 즉시 자기의 바름을 몰라 보게 된다.<sup>81)</sup>

성동권은 감정과학에서 마음과 감정의 본성과 표현 방식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그들은 연관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감정의 소리와 마음의

---

同境遇中的取舍不同，我們的每一次選擇都是內心價值觀的呈現。如果能時常反省，就是時常對鏡自照，以正衣冠。

80) 『大學』, 「傳8」.

81)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59.

소리가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하며, 이는 인간의 정신 활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음성이 일치할 때 사람들은 더 깊은 수준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때로는 우리가 기쁨을 느낀다고 해서 마음이 실제로 기쁨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외부적인 기쁨이 심장의 깊은 감정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기쁨은 실제로 마음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느끼는 바에 어긋난 것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이나 몸 상태로 인해 걱정되는 상황에서도 마음은 긍정적인 생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마음은 스스로 생각하며, 외부 걱정이 내부의 평온한 마음에 깊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준다. 따라서 ‘수심(修心)’과 ‘수신(修身)’이 일치하는 것이다. 다음은 ‘대학(大學)’에서의 ‘수신(修身)’에 대한 감정이다.

自天子以至于庶人，壹是皆以修身爲本.<sup>82)</sup>

‘대학(大學)’은 ‘수신(修身)’을 기초로 삼으며, 따라서 ‘수신(修身)’을 이해하는 것은 ‘명명덕(明明德)’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된다. ‘대학(大學)’은 ‘수신(修身)’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所謂齊其家在修其身者，人之其所親愛而辟焉，之其所賤惡而辟焉，之其所畏敬而辟焉，之其所哀矜而辟焉，之其所敖惰而辟焉。故好而知其惡，惡而知其美者，天下鮮矣.<sup>83)</sup>

이 문장에서의 친애(親愛), 천악(賤惡), 경외(敬畏), 애창(哀矜), 오 나태(傲 懶怠)는 실제로 각자가 자기 발전의 길에서 마주치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러한 감정들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직접 얻어지는 감정이다. ‘수신(修身)’에 대해 얘기하는 ‘대학(大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고 이해하는지, 그들의 본질을 알아차리고 이러한 감정들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명명덕(明明德)’은 사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깊은 학습과 이해를 통해 실현되는 과정이다. 이는 감정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정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풍은 논문에서 ‘명명덕(明明德)’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자신의 감정과 몸을 깊이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는 내부적인 감정을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이러한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실천 과정에서 개인의 감정과 인식에 어떻게 대

82) 『大學』, 「經」.

83) 『大學』, 「傳」.

처해야 하는지만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삶의 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다.

## 2) 감정과학의 이해

『대학(大學)』에 설명된 대로 학습 여행은 항상 자기 몸 인지와 이해와 이해의 기점으로 이해했다.

是以大學始教，必使學者即凡天下之物，莫不因其已知之理而益窮之，以求至乎其極。<sup>84)</sup>

이 문장은 교육의 목적이 지식을 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이미 보유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그 뒤에 있는 원리를 파고들며 지식의 극한을 탐구하는 것을 강조한다. 감정과학에 따르면, 감정의 기본적인 정의를 ‘몸의 변용’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조되기 전의 몸 자체부터 시작해야 한다. 모든 학문의 시작은 자기 몸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필연성이다. 마음이 자기 몸의 본질과 필연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때, 마음의 기능이 생각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이에 명확히 말한 것이 바로 맹자(孟子)이다.

心之官則思，思則得之，不思則不得也。此天之所以與我者，先立乎其大者，則其小者不能奪也。此爲大人而已矣。<sup>85)</sup>

이 문장의 의미는 마음이란 장기는 생각하기 위해 존재하며, 생각만이 얻을 수 있으며, 생각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맹자는 마음의 기능은 생각라는 사실을 확정했지만, 실제로 마음을 본 적이 없으며, 실제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할 때, 스스로 생각하는 사실에 따라 생각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한다. 이 기반에 따라 마음의 생각에 따라 변화하는 감정이 본질적인 필연성으로 존재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대학(大學)』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天下之物，莫不有理<sup>86)</sup>

천하의 모든 것은 다 존재하는 도리가 있다. 성동권은 이 말에 대해 이렇게 설명

84) 『大學』, 「傳5」.

85) 『孟子』, 「告子上」.

86) 『大學』, 「傳5」.

했다.

세상 모든 감정'(物)은 자기 존재에 관하여 본성의 필연성', 즉 '리'(理)를 가지고 있으며 오직 그것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이해하려는 감정이 과연 자기 존재에 관하여 본성의 필연성을 따르는지 알고 싶은 우리에게, 주자는 그 어떠한 친절 한 설명도 없이 '감정은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 존재합니다.'라고 결론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유의 능동성 또는 자명한 이해를 형성하는 마음의 능력을 마음의 본성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멈추면 자기 스스로 자기 원인'의 마음을 부정하는 비극입니다.<sup>87)</sup>

주자의 철학 체계에서는 '이(理)'가 우주와 만물의 존재와 발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는 사물의 내재적인 법칙과 본성이다. 주자의 '이기론(理氣論)'에 따르면, '이(理)'와 '기(氣)'는 만물의 기본 요소로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이(理)'는 '천리(天理)'이며, 천명이 필연성이고, '기(氣)'는 형태이며 몸의 감정으로, 인간의 정신 현상인 '이(理)'가 인간의 마음에 표현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마음은 '기(氣)'가 모여 있는 결과이다.

성동권은 모든 감정은 각자 고유한 '이(理)'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즉 그 본질적인 필연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감정은 무작위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필연성을 가지며, 이러한 필연성은 '이(理)'에 의해 결정된다. 성동권이 언급한 자기의 사색과 진화가 멈추는 비극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색과 성장을 멈춘다면, 그는 '이(理)'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자기 부정을 초래하며 잘못된 감정을 가져오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명덕(明德)'의 본질은 몸 또는 감정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명명덕(明明德)'은 자신의 감정 또는 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학문이다. '대학(大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온다.

康誥曰：“克明德。”太甲曰：“顧諟天之明。”帝典曰：“克明峻德。”皆自明也。<sup>88)</sup>

'극명덕(克明德)'의 '극(克)'은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다. 즉,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문장에 있으며, '자명(自明)'은 '대학(大學)'의 모든 글의 핵심이자 동시에 '명덕(明德)'의 핵심이다. 성동권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87)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59.

88) 『大學』, 「傳1」.

강고가 말했다. ‘자기의 감정(感情)은 자기 스스로 이해(克)한다.’ 태갑이 말했다.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위해서는 감정 느끼는 몸을 그 자체의 필연적 본성으로 이해 해야 한다.’ 제전이 말했다. ‘감정은 자기 몸 생김 그 자체의 필연적 본성을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 갖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이해(克明)는 감정의 감각적 현상이 아니라 감정이 자기 안에 본래부터 품고 있는 자기 본성의 필연성(峻德)을 이해하는 것이다.’ 모두 자기 스스로 명석 판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다.<sup>89)</sup>

성동권의 설명에 따르면, 이 단락은 매우 이해하기 쉽다. 강고(康誥)는 우리 자신의 내재적 체험이 감정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태갑(太甲)은 감정이 심리 현상뿐만 아니라 몸적 반응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감정의 경험은 몸적 반응과 분리될 수 없으며 몸 본성의 일부라고 본다. 따라서, 제전(帝典)의 생각은 태갑(太甲)의 관점을 깊이 있게 발전시키며, 감정과 몸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감정의 본질을 보다 깊은 수준의 ‘본성적인 필연성’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감정은 볼 수 있는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몸속에 본래 존재하는 것이다. 이 분석을 기반으로, ‘자명(自明)’은 자기의 감정을 명확히 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동권은 이러한 생각을 확신하고 있다.

‘자명’덕(‘自明’德)입니다. ‘감정’을 뜻하는 ‘명덕’(明德)은 스스로[自] 밝은[明] 것입니다. 감정은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느끼며 자기 스스로 그에 대한 관념을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자명’명덕(‘自明’明德)입니다. 수신(修身)의 ‘신’(身)이 ‘감정’이라는 사실로부터 감정은 몸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몸의 언어입니다.<sup>90)</sup>

감정과학에서는 ‘자명(自明)’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을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우리는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능력은 외부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통해 유래하는 ‘마음’의 행동성에 기반한다. 두 번째로, ‘명덕(明德)’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적 현상이다. ‘명덕(明德)’은 몸의 기초 위에 세워지며, 몸의 본질적인 성질은 감정을 통해 표현된다. 즉, 감정은 몸의 본질적인 성질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반영이다.

따라서, 감정과학에서의 ‘자명(自明)’과 ‘명덕(明德)’의 의미는 명확해진다. 이전의 연구 이론에 따르면, 『대학(大學)』에서 ‘수신(修身)’에 대한 가르침은 감정의 올바른 이해를 의미한다. 이는 몸이 감정의 용기임과 동시에 감정이 몸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몸으로 경험한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영혼은 인식의 중심이

89)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96.

90)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9.

된다. 이 경우, 영혼은 자기 몸과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형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명덕(明德)’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명명덕(明明德)’은 몸으로 경험한 감정에 따라 삶을 살며, 영혼은 이러한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삶을 이끌어간다. ‘명덕(明德)’의 핵심은 자기 몸과 감정을 이해하고 이러한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 2. 격물치지(格物致知)

‘대학(大學)’은 송조의 주자가 ‘사서(四書)’의 첫 번째로 선정되어, 유가 교육에서의 기초적인 위치를 확립하였다. 주자(朱子)는 ‘대학(大學)’의 해석이 매우 중요하며, 그의 해석은 ‘대학(大學)’을 이해하는 기반이 되었다. ‘격물(格物)’ 개념을 깊게 이해하려면 먼저 ‘대학(大學)’이 전달하는 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의 기반 위에서 ‘격물(格物)’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대학(大學)’은 ‘삼강령(三綱領)’과 ‘팔조목(八條目)’을 주제로 하여 글 전체의 논술을 전개한다. 이 내용들은 ‘대학(大學)’의 핵심 구조를 형성하며, 다음은 ‘대학(大學)’에서 이러한 핵심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다.

古之欲明明德于天下者，先治其國；欲治其國者，先齊其家；欲齊其家者，先修其身；欲修其身者，先正其心；欲正其心者，先誠其意；欲誠其意者，先致其知；致知在格物。<sup>91)</sup>

주자(朱子)는 ‘대학(大學)’에서 제시된 ‘명명덕(明明德)’, ‘신민(新民)’, ‘지우지선(止于至善)’ 세 가지를 ‘대학(大學)’의 삼강령(三綱領)이라 부르고,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를 ‘대학(大學)’의 팔조목(八條目)이라 부른다. ‘격물치지(格物致知)’는 ‘수신(修身)’의 방법이기 때문에, 주자(朱子)는 이러한 항목들에서 ‘수신(修身)’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正心以上，皆所以修身也。齊家以下，則舉此而措之耳。<sup>92)</sup>

이 문장에 있는 정심(正心) 이상, 즉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91) 『大學』, 『經』.

92) 『四書章句集注』, 『大學章句』, ※ 논자의 번역이다.



은 모두 수신(修身)에 기초하고 있다. 제가(齊家) 이하, 즉, 제가(齊家), 치국(治國) 및 평천하(平天下)는 모두 수신(修身)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sup>93)</sup>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은 ‘수신(修身)’의 핵심을 구성하며, 치지(致知)를 먼저 해야만 성의(誠意)와 정심(正心)을 갖출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는 수신(修身)으로부터 파생된 구체적인 실천이다. 여기에서 ‘격물치지(格物致知)’는 수신(修身)을 나타내고, ‘거차(舉此)’는 수신(修身)을 기반으로 한 추가적인 실천을 의미한다. ‘수신(修身)’을 실천한다면, 제가(齊家), 치국(治國) 및 평천하(平天下)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수신(修身)’은 모든 행동의 시작점이며, 근본적으로 ‘수신(修身)’에 기인한다.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천자부터 평민까지 모든 사람은 ‘수신(修身)’을 기반으로 하고, 제가(齊家), 치국(治國) 및 평천하(平天下)를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천하(平天下) 하는 일은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수신(修身)’한 후에 실제적인 실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체 『대학(大學)』 학문의 주제는 ‘수신위본(修身僞本)’의 한문 僞는 爲로 주변에서 돌아간다. ‘격물(格物)’의 의미는 ‘수신위본(修身僞本)’하는 한문 僞는 爲로 생각에서만 정확히 이해될 수 있다. 이점에 대해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은 중국 학자들이 이해하는 ‘격물치지(格物致知)’이다.

## 1) 현대 중국 학자들이 이해하는 격물치지

### (1) 예시(葉适)의 『대학(大學)』에 대해 이해

유가 사상에서 ‘격물치지(格物致知)’라는 것을 주로 중국 학자들이 사물의 원리를 깊게 탐구하여 진정한 지식에 도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한다. 그러나 예시(葉适)는 『대학(大學)』의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해 독특한 해석을 제시하며, 인간과 물질 사이의 조화 관계와 주관객제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人之所甚患者，以其自爲物而遠于物。夫物之于我，几若是之相去也，是故古之君子，以物用而不以己用；喜爲物喜，怒爲物怒，哀爲物哀，樂爲物樂。其未發爲中，其既發爲和。一息而物不至，則喜怒哀樂几若是而不自用也。自用則傷物，傷物則己病矣，夫是之

93) 장학, “감정과학에 기초한 주자와 왕양명의 ‘격물치지’ 이론 연구 분석,”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2023), p. 63.

예시(葉适)는 ‘격물(格物)’을 감정 영역까지 확장해, 격물(格物)은 물의 이성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공감과 대응의 한 형태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과 물질 사이의 관계가 개인의 주관적 욕구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 하며,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유가과학자 맹상흥(孟祥興)은 예시의 생각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예시는 “격물”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인과 물의 접점과 접촉이며, 이는 정이와 주희의 해석의 제 1 의미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정이와 주희는 “격물치지”를 ‘대학’ 공부의 시작과 기초로 삼기 때문에 예시의 견해를 지지한다. 예시하고 정이랑 주희가 해석에서 다른 점도 매우 명확하게 나타난다. 주요한 점은 예시는 완전히 “궁리”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는 그가 정이와 주희의 “격물”을 “궁리”로 해석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시는 “격물”의 키워드를 인과 물의 접점과 접촉으로 해석하며, 주체는 사물의 본래 상태와 실체에 순응하여 해당 판단과 인식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컨대, 기쁨, 노여움, 슬픔 등의 감정은 물체에 의해 발생하며, 물체의 상태에 대응한다. 개별적인 주체의 주관적이고 독창적인 의식을 근거로하지 않는다. 현실 세계에서 사물과 인간이 분리되면 “자용” 상태에 빠지기 쉽다. “자용”은 사물을 상하기에, “상”은 사물의 인식을 왜곡하고 이탈시킨다. 이는 주체에게 되돌아와 구체적인 행동활동에서 수동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만든다.

여기에서 예시는 ‘중용’에서 사물과 인간이 상호 접촉해야한다는 관점을 중요시하며, “치지”의 의미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석을 제시하지 않는다. “치지” 대신 “격물”과의 관계를 직접 논의한다. 그는 인간이 사물에 대한 지식(지지)을 얻게 되면, 지식이 사람과 물 사이의 접점과 접촉을 확인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사람이 사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주체와 사물이 아직 접촉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시의 사상에서 “치지”는 주체의 사물에 대한 인식 활동을 가리키는 반면 “지지”는 주체가 사물에 대응하는 지식을 이미 얻었음을 가리킨다.<sup>95)</sup>

94) 叶适(예시), 『叶适集 2版(예시집 2판)』(中華書局(중화서국), 2010).

95) 孟祥興(맹상흥), “叶适對《大學》的詮釋——從推崇到反思與批判(예적(葉适)이 ‘대학’을 해석하는데 있어 추앙부터 반성 비판까지),”『溫州大學學報』 제35기, (2019).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叶适認為“格物”思想中最重要的觀點即是人与物之相接、相至，這与程頤、朱熹之詮釋的第一重意涵相合。其次，程頤、朱熹將“格物致知”作為《大學》工夫的起点与基石，叶适亦持此觀點。而叶适与程頤、朱熹在詮釋上的不同，也是非常顯明的，主要體現為：叶适完全沒有提及“窮理”，可見他對程頤、朱熹將“格物”詮釋為“窮理”是持否定態度的；叶适詮釋“格物”的關鍵在于人与物之相接、相至，且主体應順從事物本來狀態与面目而作出相應的判斷与認知也即是說，喜怒哀樂等情感的生發是因物而有，且相應于物之狀態，而非以个体主觀而獨斷的意識為根据。在現實世界中，人若与事物隔絕，就難免陷入“自用”的狀態，“自用則傷物”，“傷物”則是對事物認知的扭曲与背離，這將反饋于主体，使主体在具体的行為活動中陷入被動与茫然。在此，叶适引《中庸》之言論証人應与物相接、相至的觀點，但對於“致知”的意涵，他沒有作相應的詮釋，而是直接討論“知至”与“物格”之關係，認為：人獲得關於事物的知識（知至），而知識反過來可以驗證人与物之相接、相至（物格）；人缺乏關於事物的知識，則表明主体与物尚未相接。可見，在叶适思想中，“致知”主要指主体關於事物的認識活動，而“知至”則主要指主体已經獲得了相應于事物的知識。

명상성(孟祥興)의 예시(葉适)에 대한 사상 분석에서 예시의 사람과 사물의 직접적인 연결과 연결, 즉 사람은 사물의 본래 모습과 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순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물과 사람의 상호작용은 개인과 환경 사이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옳지 않다. 주자에게 있어서, 만약 주자가 ‘격물(格物)’을 사물과 사람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한다면, 주자는 사물의 깊은 수준과 본질적 이해에 도달할 수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수신위본(修身僞本)’의 개념이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소설, 시 등 다양한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작가가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자연을 찬양할 때,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작가의 감정 표현에 더 중점을 둔다. 또한 장학도 논문에서 언급한다. 공자(孔子)가 유교의 학문적 체계를 구축한 시초부터 학문의 초점은 자연적인 사물이 아니라 개인의 수신(修身)에 있었다.<sup>96)</sup>

다음으로, 명상성은 예시의 사상을 분석한다. 예시는 감정의 발생은 구체적인 외부 자극이나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감정반응은 외부사물의 구체적인 상태와 일치한다. 예를 들어, 슬픈 사건에 직면하면 자연스럽게 슬픔의 감정이 생기고, 기쁨의 상황에 직면하면 기쁨의 감정이 생긴다. 이러한 대응관계는 감정이 우발적이거나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물의 출현으로 인해 감정이 자극되고 구체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적절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옳지 않다. 주자가 말한 ‘갈물’이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며, 감정은 우리 자기 몸의 변화로 인해 존재하게 된 것이므로 외부 사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모두 받아들여야 하며, 이 점은 『대학(大學)』에도 언급되어 있다.

小人閑居爲不善，无所不至，見君子而后厭然，掩其不善，而著其善。<sup>97)</sup>

이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면 잘못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고 살아가게 된다. 심지어 자신의 감정을 거슬러 올릴 수도 없게 된다. 그러면 억지로 자기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그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최상의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성동권은 이에 대해 다

96) 장학, “감정과학에 기초한 주자와 왕양명의 ‘격물치지’ 이론 연구 분석,”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2023), p. 38.

97) 『大學』, 「傳1」.

음과 같이 설명한다.

감정을 느끼며 감정대로 산다는 진리의 필연성을 확인합니다. 이 필연성이 마음 스스로 분명할 때 마음은 감정을 배우는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역으로 격물치지의 결과 감정을 느끼며 감정대로 살아가는 진리의 필연성을 누립니다. 참고로 ‘견군자’(見君子)의 뜻을 그러다가 어기고 싶어도 절대적으로 어길 수 없는 자기의 감정을 듣게 되는데’라고 번역한 이유는 자기가 아무리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고 외면한다고 하여도 그 자기는 절대적으로 몸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감정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사실은 ‘군자’(君子)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감정입니다.<sup>98)</sup>

성동권은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학문으로 확립하였으며, ‘수신(修身)’은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기초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몸은 행동의 매체뿐만 아니라 감정의 근원이기도 하다. 감정의 느낌과 표현은 인간 경험의 핵심 부분으로, 개인의 승려에게 중요한 측면이다. 성동권이 언급한 것과 같이, 감정생활의 진리는 마음으로 명확해질 때, 개인은 자신의 감정을 더 잘 배우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실제 응용이다. ‘대학(大學)’은 ‘수신(修身)’을 사유 주석으로 삼고 그 핵심은 인간의 몸 경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격물치지(格物致知)’는 ‘수신(修身)’하는 방법으로서 배워야 할 학문이다. ‘격물(格物)’은 자기 몸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며, 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치지(致知)의 상태, 즉 감정의 필연성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표면적인 글을 배우기만 하고 핵심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수신(修身)’을 기초로 삼지 않으면 ‘대학(大學)’의 정신과 본질적 의도를 실제로 이해하기 어렵다.

## (2)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과학적 논리

많은 중국 학자는 서양의 과학적 논리를 도입하고 유학(儒學)의 ‘격물치지(格物致知)’ 개념으로 이를 분석해 왔다. 정천상(鄭天翔)과 왕극희(王克喜)는 그들의 연구 논문에서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과학적 논리에 대한 응용을 깊이 분석하였다. 정천상(鄭天翔)과 왕극희(王克喜)는 논문에서 말했다.

주희도 실험으로 과학적으로 발전되었다. 그는 제자 임택지에 사용되는 대나무 척척을 측정했다. 집에는 혼의 도구하고 ‘워터비즈니스 제도’도 있었다. 또한, 선조들

98)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56.

의 과학적인 일반화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였으며, 이미 있는 과학적 결론을 자신의 관찰로 확인하고 검증하였다. 주희는 자신의 산천에 대한 현지 조사에 근거하여 당시 가장 유명한 지리 과학 저작물인 "우공"에서 여러 문제를 바로 잡았다. 일반화는 과학의 발전에 불가결한 논리적 방법이며, 정주 이학의 격물치지에 내포된 일반화 방법은 중국 고대 과학의 진보를 촉진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적 논리 격의인 격물치지는 정주 이학의 격물치지로 명백하다. 그래서 격물치지의 과학적 논리적 의미를 분석하고, 중국 전통적인 과학적 논리적 생각을 설명하며, 과학적 논리 발전의 필요성을 입증함으로써, 신시대 과학 사업에 문화적 자신감을 더하는 동시에 참고 경험을 제공한다.<sup>99)</sup>

정천상(鄭天翔)과 왕극희(王克喜)는 주자(朱子)의 과학적인 방법을 분석할 때 사물의 표면적 현상에만 관심을 두었으며, 주자가 과학 연구에서 사실과 관찰 방법을 특별히 중요시하고 있어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과학적 논리를 이룬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문제의 표면에만 접근한 것일 수 있다. 사실, 주자는 이러한 실험과 관찰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많은 준비를 이미 진행했다. 『대학(大學)』<sup>1)</sup>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知止而后有定，定而后能靜，靜而后能安，安而后能慮，慮而后能得。<sup>100)</sup>

이 문장은 지녀야 할 경지를 안다면 의지가 굳어진다는 의미이다. 의지가 굳어지면 안정적이며, 안정적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마음의 평온은 더욱 평온한 안심으로 변화한다. 여기서 안심은 감정적으로 편안함뿐만 아니라 현상에 대한 깊은 인식과 만족도를 의미한다. 조중빈의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지금 여기 이 좋은 데 머무를 줄 아니 내 몸을 하찮게 여기고 떠나려던 마음이 좌절하고 마음이 좌절하니 자동 느낌이 오고 느낌이 오니 자동 안심하고, 안심하니 자동 배려하고, 배려하니 자동 행복을 얻는다.<sup>101)</sup>

조중빈은 이에 대한 말은 내면의 이해에서 시작해 점차 깊은 심리적 안정과 지혜

99) 鄭天祥(정천상), 王克喜(왕극희), “格物致知的科學邏輯蘊含(격물치지의 과학적 논리적 의미),” 『湖南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후난과학기술대학교 학보:사회과학판)』 제1기, (2021).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朱熹亦利用實驗來從事科學發現。他曾命弟子林擇之用竹尺測量不同地區的日影，其家中也有渾儀，“頗考水運制度”。同時，面對前人的科學歸納朱熹也始終保持審慎的態度，他會以自己觀察檢驗已有的科學結論。朱熹依據自身對山川的實地考察，糾正了當時最爲著名的地理科學著作《禹貢》中的多處問題。歸納乃科學發展不可或缺的邏輯方法，程朱理學格物致知蘊含的歸納方法促進了中國古代科學的進步。故綜上所述，作爲科學邏輯格義的格物致知乃程朱理學的格物致知已十分顯然。所以，格物致知的科學邏輯意蘊探析，既闡釋了中國傳統科學邏輯思想，也証明了發展科學邏輯之必要性，爲新時代的科學事業增加文化自信的同時，更提供了借鑒經驗。

100) 『大學』, 「傳1」.

101) 조중빈, 『자명대학』 (부크크, 2020), p. 112.

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요약된다.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知止)를 인식하여 마음의 안정을 이룩한다. 마음이 안정되면 마음의 평정(靜)이 뒤따른다. 마음의 평화는 더 나아가 전면적인 안녕(安)으로 변한다. 여기서 안심은 정서적 편안함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인정과 만족이다.

조중빈은 이 느낌을 ‘자동안심(自動安心)’으로 묘사하며, 평온 상태의 개인은 생각과 계획을 더 잘할 수 있다(慮). 마지막으로 심사숙고를 통해 내 마음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得). 지식 획득에는 끝점이나 한계를 알고 진리를 얻기 위한 일련의 단계가 강조된다. ‘대학(大學)’은 진정한 학문 탐구가 표면적인 의견 정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근본적인 이념을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지식 획득은 고요에서 생각으로 검토하기까지의 과정으로, 자신의 생각에 주력해야 한다. 주자의 과학적인 실천은 관찰과 실험에 기초한다.

정천상(鄭天翔)과 왕극희(王克喜)는 그것이 주자의 탄생 후 심사숙고한 결과물이라고 언급했다. 게다가 주자의 거슬러질 수 없는 긍정 방식으로, 기술과 실험 데이터에 대한 의존을 나타낸다. 그러나 ‘대학(大學)’에서는 사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은 먼저 사물과 소통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따르며, 이 과정은 사물의 본질적인 탐구를 강조한다.

과학적 논리의 적용에서는 기술과 방법의 향상뿐만 아니라, 저자가 이해한 대로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이해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의 일부분만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내면적인 생각과 학습을 간과할 수도 있으며, 자기 몸이 가장 진실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해는 분명히 ‘대학(大學)’이 가르쳐야 할 진정한 지식을 공부하지 않은 것이다. ‘대학(大學)’의 ‘격물치지(格物致知)’는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세계의 인식과 감정적인 합리적인 대처도 중요하다.

### (3) 우술성(于述聖)의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이해

유가경전 ‘대학(大學)’에서는 ‘격물치지(格物致知)’가 유학사상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여겨왔다. 이 개념에 대해 학자들은 각자의 해석과 응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학자인 우술성(于述聖)은 독특하고 깊은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격물치지(格物致知)’가 인지 과정뿐만 아니라 심리와 이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몸론 이론이라고 생각했다. 저자인 우술성(于述聖)은 ‘격물치지(格物致知)’를 몸을 닦는 작업으로 이해했다.

‘격물치지’는 ‘수신’으로 ‘정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치지’에서의 ‘지’

는 ‘정리’의 지, ‘격물치지’는 정리된 이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정과 이성을 통합하며 정리된 감정과 이성을 통해, ‘대학(大學)’은 감정과 이성의 통일을 효과적으로 실현했다.<sup>102)</sup>

우술성(于述聖)은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수신(修身)’으로 이해하고, 이는 감정과 학의 이론과 일치한다. ‘격물(格物)’에 대해 주자는 ‘대학장구(大學章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格, 至也. 物, 猶事也. 窮至事物之理, 欲其極處无不到.<sup>103)</sup>

이 문장에서 꺾(格)은 지(至)이며, 물(物)은 리(理)이다. 궁리(窮理)란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이다.<sup>104)</sup> 주자는 ‘물’을 모든 사물로 이해하며, 자신의 몸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의 존재에는 일정한 이치가 있으므로 사물 자체에도 일정한 이치가 존재한다.

주자의 ‘격물(格物)’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사물적 리(事物的 理), 극치적 리(極致的 理)’를 나타낸다. 이에 기반하여 주자는 모든 생각은 사물의 본체 추적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사실로 보아 ‘대학(大學)’에서 ‘격물치지(格物致知)’가 ‘수신(修身)’의 기본적인 방법으로서의 배경에서 볼 때, 이들은 ‘성의(誠意)’와 ‘정심(正心)’과는 다르며 인식론적 문제가 아니라 몸 닦기의 실천적 방법이다. 따라서 ‘성의(誠意)’를 기반으로 하는 논리에서 출발하여 ‘격물치지(格物致知)’는 “몸 닦기”의 기초로서 여겨져야 하며, ‘수신(修身)’ 범주를 벗어나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우술성(于述聖)은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통정이달예(通情以達禮)’의 과정으로 이해하며, 사물을 이해하는 동시에 감정의 연결을 느끼고 이를 통해 사물의 이성적인 깊은 이해를 달성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해석은 진정한 지식이 사물 속성의 이해뿐만 아니라 사물의 영향에 따른 감정 체험과 반응의 이해를 포함한다. 우술성의 이해는 감정 이론에 감정을 도입하지만, 감정 이론과는 다르게 감정은 ‘나 자신의 몸과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성동권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02) 于述圣(우술성), “通情以達理——《大學》“格物致知”本義及其理論价值, (“대학”의 “격물지식”의 의미 및 그 이론적 가치), “『教育研究(교육 연구)』 제482기, (2020).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作爲修身工夫의 格物致知, 与“情理”密切相關, 由前后两个環節构成。‘致知’之‘知’即情理之知, ‘格物致知’就是通情以達理의 物(人)我感通之道。通過通情以達理, 《大學》有效地實現了情与理의 統一.

103) 『四書章句集注』, 『大學章句』, ※ 논자의 번역이다.

104) 장학, “감정과학에 기초한 주자와 왕양명의 ‘격물치지’ 이론 연구 분석,”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2023), p. 42.

인간의 진실은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놀이한다는 영원무한의 필연성에 있습니다. 이 필연성을 어기며 존재하는 인간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500년 전 공자도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놀이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놀이하고 있습니다. 몸이 있어야 그에 고유한 이름이 있으며, 그 이름이 곧 존재의 확인입니다. 그런데 생겨난 몸으로 놀이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몸이 느끼는 감정을 자각(自覺)하며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역시 영원무한의 필연성입니다. 몸이 없으면 느낄 수 없는 것이 감정입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오늘을 몸으로 살아가시는 분은 오늘의 새로운 감정을 느낍니다. 인간이 몸으로 생겨나고 놀이하는 한에서 감정을 떠나서 놀이가 따로 없습니다.<sup>105)</sup>

성동권은 몸이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명확히 밝혔으며, 몸이 인간의 경험과 감정생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몸은 물리적인 존재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감정과 존재의 승인의 경로이다. 공자 시대부터 현대까지 변하지 않은 것은 인간들이 몸을 통해 세상을 경험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몸은 매일 활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감정을 느끼고 응답한다. 이러한 경험은 시간과 공간으로 구체화한다.

공자는 감정과학자로 인정받으며,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감정을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렇다면, '대학(大學)'을 기반으로 한 유가 사상의 주자(朱子) 역시 감정과 학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격물치지(格物致知)'는 외부 지식 학습 과정이 아니라 내부 감정 학습의 일종이다. 주자의 이러한 관점은 진정한 지식이 감정의 깊은 이해와 통제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수신(修身)'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 2) 감정과학의 이해

'대학(大學)'에서 '격물치지(格物致知)'의 핵심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으며, 이는 과정과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포함한다.

所謂致知在格物者，言欲致吾之知，在即物而窮其理也。<sup>106)</sup>

이 문장은 진정한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물 자체의 근본 원리를 깊이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물의 표면적인 이해가 아니라, 사물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그 작동의 논리와 구조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

105)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37.

106) 『大學』, 「傳5」.



는 자주 말하는 현상을 통해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식을 완전히 이해하고 행동을 끌어내며 마음을 교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성동권은 감정과학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설명을 제공한다.

이른바 ‘(몸에 대한) 마음의 타당한 인식은 감정에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은 (몸에 대한) 내 마음의 인식을 타당하게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감정에 나아가 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는 뜻이다.<sup>107)</sup>

‘치지(致知)’는 먼저 ‘격물(格物)’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성동권이 말한 것처럼, ‘치지(致知)’는 마음의 인식으로 이해하고, ‘격물(格物)’은 감정의 본성으로 이해한다. ‘격물치지(格物致知)’가 감정 과학으로 발전하면, 배워야 할 것은 감정의 고유 본성과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이며, 이로써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이해할 수 있다. 『주자어류(朱子語類)』에서 ‘격물(格物)’과 ‘치지(致知)’의 관계를 설명한다.

致知、格物，只是一事，非是今日格物，明日又致知。格物，以理言也；致知，以心言也。

격물(格物)과 치지(致知)는 동일한 것으로, 격물(格物)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치지(致知)를 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격물(格物)은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 탐구되고 치지(致知)는 내면의 감각을 통해 이해되는 것이다.<sup>108)</sup>

몸으로 존재하는 감정에 따라, 몸이나 감정 모두 마음의 생각에서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은 감정이 존재하는 필연적인 조건이다. 몸은 이미 영원하고 무한히 존재할 필연성이기 때문에, 몸이 느끼는 감정도 영원하고 무한한 필연성이다. 따라서 마음은 그 자체 본질을 확립한다. 『주자어류(朱子語類)』는 ‘격물(格物)’과 ‘치지(致知)’의 논리적인 관계에 강조를 두며, ‘치지(致知)’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격물(格物)’을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감정과학에서 마음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먼저 감정과 몸의 필연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논리와 일치한다.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해서, 『대학(大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物格者，物理之極處无不到也。知至者，吾心之所知无不盡也。知既盡，則意可得而實矣，意既實，則心可得而正矣。<sup>109)</sup>

‘격물(格物)’은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을 통해 사물의 원리와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107)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37.

108) 『朱子語類』, 『第一冊』, p. 292. ※ 논자의 번역이다.

109) 『四書章句集注』, 『大學章句』, p. 5. ※ 논자의 번역이다.

고, ‘치지(致知)’는 이 과정을 통해 사물의 진실을 이해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전에 논증한 바에 따르면 ‘격물(格物)’의 본질은 ‘수신(修身)’이라는 이치인데, ‘수신(修身)’은 논의한 것과 같이 ‘위기지학(爲己之學)’이다. 감정과학과 결합하여 이 문장을 해석하면 ‘격물(格物)’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미 몸의 본성을 이해한 것이고, ‘치지(致知)’의 본질적인 의미는 마음이 몸의 본성을 영원한 필연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치지(致知)’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성동권은 책에서 확인했다.

주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허한 것이라서 치지(致知)의 ‘지(知)’를 본래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치지(致知)의 치(致)은 ‘다하다’의 뜻이므로 ‘치지’(致知)는 더 이상의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명석판명의 이해 그 자체입니다. 자명(自明)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자는 최고의 완전성 그 자체로서 ‘자명’(自明)을 속성으로 갖는 ‘치지’의 인식(知)을 우리의 마음이 본래부터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sup>110)</sup>

이 문장을 통해 성동권은 주자 사상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인의 마음이 사물의 진실을 직접 인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능력은 경험적인 축적이 나 논리적인 생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직관적이고 근본적인 인식 형태이다. 이러한 논리에 기반하여 ‘격물(格物)’은 몸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고, ‘치지(致知)’는 생각하는 마음을 통해 감정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임을 확인했다.

---

110)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59.

## 제4장 유교 감정과학에 기초한 중국의 윤리교육 비판 및 분석

### 제1절 감정과학에 기초한 중국의 윤리교육 비판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논어(論語)」와 「대학(大學)」을 깊이 있게 탐구함으로써 감정이 실제로 몸 안에 있는 고유한 부분임을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몸과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중국의 전통 윤리 교육에서 종종 간과되었으며, 중국의 윤리 교육은 자기 몸을 이해하는 것을 모든 지식의 기초로 삼지 않는다. 감정과학의 학문에 따르면, 행복이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자기 몸의 본성과 필연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미 분명히 알고 있다.

마음은 자신의 사유능동성을 바탕으로 자기 몸에 내재한 본성과 필연성을 이해한다. 부모는 무한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의 존재로서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나는 이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내 몸의 필연성이다. 아빠와 엄마는 원래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기 때문에 나의 몸에도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 함유되어 있으며, 내 몸의 본질은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다. 이 학문에서 몸속에 최고의 행복이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최대의 행복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 나는 제2장과 제3장에서 말한 감정과학의 학문을 바탕으로 강의 의무론과 목적론을 접근점으로 삼아, 왜 요즘 사람들은 유가 윤리 교육 사상을 학습한 뒤에도 행복을 느끼기 어려운지 비판할 것이다.

#### 1. 의무론

칸트(康德)의 의무론은 주로 행복론에 대항하여 제기되었으며, 칸트는 윤리학이 우리에게 최대의 행복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칸트 의무론은 의지력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칸트 도덕철학에서 의지력은 도덕적 행동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한다. 그는 도덕적 행동이 의무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동이라고 여겼으며, 이 이론은 자기의 의지력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삼았다. 칸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당신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면, 당신이 행동하는 지침은 당신의 의지에 따라 일반적인 자연법칙이 되어야 한다.<sup>111)</sup>

칸트가 말하는 의무란 사실은 사람이 여러 주관적인 제약과 장애를 마주치더라도 여전히 이성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적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도덕적 행동을 지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의지력은 아주 강력해야 한다. 칸트 의무론은 인간 의지력의 중요성을 극도로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조는 인간 몸의 고유한 본질과 진정한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공자의 감정과학은 심층적으로 몸 자체와 그 고유한 감정을 이해하고 배울 방법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반드시 공자가 ‘의지력(意志力)’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공자의 감정과학은 감정의 본성과 필연성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에서 느끼는 감정을 기점으로 해야 하며, 감정을 진짜로 느껴야 한다. 현재 느끼는 감정을 감정의 본성과 필연성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옳은 감정의 이해이다. ‘몸-생김’을 먼저 이해하고, 몸으로 게임을 즐기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순수지선(純粹至善)이다.

다음으로는 의지력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몸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여 배고프다고 느낄 때, 하지만 스스로에게 먹지 말라고 말하는 행동이 의지력이다. 위의 이론에 따르면 감정과학의 핵심은 “행동의 의지력”이 아니라 몸의 진실을 배우는 것이다. 감정과학의 핵심은 자기 몸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는 의지력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의지력은 원래 존재하지 않으며, 생각로부터 생겨났다. 그러나 자신은 마음의 능동성을 통해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의지력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공자도 이견을 인정하였다.

子曰：射不主皮，爲力不同科，古之道也。<sup>112)</sup>

공자는 화살을 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각각의 사람들의 체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문장의 핵심은 화살을 쏘는 것이 중요한 점은 항상 목표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목표를 찌르기 위해서는 의지력으로 인해 만들어진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녁을 뚫는 것으로 활쏘기의 본질을 규정하면, 활쏘기에 참가한 사람은 힘을 키우

111) 칸트, 『도덕형이상학』(한길사, 2018), 제16강.

112) 『論語』, 「八佾」, 16장.

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과녁을 뚫을 수 있을지, 그 방법만을 고민합니다. 그 결과 활쏘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활쏘기가 아니라 과녁을 뚫기 위한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산다는 것은 '힘'이 아니라 자기 몸에 존재하는 생명과 사랑의 진실을 알아서' 그 진실에 적중하며 사는 것입니다.<sup>113)</sup>

성동권은 화살을 쏘는 것이 한계를 넘는 것이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살을 쏘는 과정에서 내재한 가치를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삶은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나 자신에 존재하는 생명과 사랑의 진실을 이해하고 이 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다. 따라서 공자의 학문이 힘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힘은 의지력에 의해 통제되므로, 학문도 의지력에 의존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다면, 조중빈이 『안심논어』에서 언급한 말을 살펴볼 수 있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천리마란 그 힘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고난 재능 [德]을 칭송하는 것이다."

子曰：驥，不称其力，称其德。<sup>114)</sup>

‘기(驥)’는 ‘천리마(千里馬)’를 의미하며, 사람들은 천리마가 힘과 의지력 때문에 천리를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자는 천리마는 그 자체로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천리를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천리마는 힘과 의지력에 의해 천리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의 본성에 내재하여 있다는 것이다. 천리마에게 있어서 천리를 달리는 것은 항상 목표나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천리마와 ‘사부주피(射不主皮)’도 같은 이치이며, 학문도 의지력을 통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은 자신의 본성을 따라 자기 몸을 이해하고, 몸의 진실에 따라 살아가야 하며, 몸의 진실은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필연성이다. 마음이 몸의 진실을 알게 되면, 마음은 몸의 진실에 따라 살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몸이 없으면 마음도 없기 때문이다.

이전에 공자의 지식을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 정의했다. 그렇다면 학문은 항상 자신의 몸을 학습의 핵심으로 삼는다. 몸은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다. 이러한 지식은 자신이 생각하고 학습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즉, 자기 생명의 진실이 영원한 생명과 사랑 속에 존재하는 ‘자기이해’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학문을 이해할 때,

113)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75.

114) 조중빈, 『안심논어』 (국민대학교출판부, 2016), p. 329.

필요한 것은 힘과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즉,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자신의 생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몸, 마음, 감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성동권은 감정에 대해 명확한 확인을 하였다.

감정의 능동 그 자체가 참답고 독립적이며, 자기원인이고 타당합니다. 이러한 감정 자신의 사실 확인이 호학(好學)의 핵심이니까, 學은 ‘감정 바르게 알기’입니다.<sup>115)</sup>

이전의 이론과 결합하여 먼저 감정은 의지력의 조절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할 수 있다. 감정은 마음의 능동적인 생각을 통해 자기 본성을 이해하는 것의 필연성이다.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며, 의지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정확히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히 할 수 있다. 감정은 절대적으로 자신 이외의 어떤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감정은 자신의 본성을 진지하게 이해하고,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무한한 생명과 사랑을 통해 감정의 무한성을 확정한다. 이 점을 명확히 하면, 왜 의지만으로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신체에 내재된 진실을 이해해야만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감정과학을 배우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이다.

## 2. 목적론

칸트 목적론은 그의 자연철학과 윤리학 사상에 잘 드러난다. 칸트는 목적론이 자연 현상과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모든 사물이 어떤 목적이나 최종적인 목표에 따라 존재하고 발전한다고 보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도덕형이상학기초』에서 ‘목적론적 실제적 명령’을 제시하여 인간을 목적 자체로 여기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목적론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상이다.

감정과학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칸트가 말하는 목적성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깊이 이해하는 것에 기반한다고 한다. 내 생각이 내 내면에서 감정을 느끼면서 감정에 대한 개념을 형성한다. 이렇게 진정한 감정을 느끼며, 감정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에 나아가 자신의 ‘본연지성(本然之性)’의 필연성을 확립한다. 따라서 감정과학의 본질은 감정의 ‘자기이해’이다. 성동권은 ‘본연

---

115)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389.

지성(本然之性)’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시했다.

우리는 삼각형을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그릴 수 있지만, 무한한 삼각형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세 개의 내각, 그리고 그 총합은 180도라는 자기 본성의 필연성을 우연적으로 부정하며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각형의 무한한 기질지정(氣質之情)은 자기의 ‘본연지성(本然之性)’을 따라서 존재하도록 영원성 그 자체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을 신적 본성의 필연성’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어떤 삼각형도 자기 본성의 필연성을 부정할 수 없거니와 심지어 신(神)자신도 삼각형의 본연지성을 부정하는 삼각형을 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sup>116)</sup>

성동권은 삼각형의 본질을 설명함으로써 ‘본연지성(本然之性)’을 설명했다. 그는 어떤 삼각형을 그리더라도 항상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특성을 따른다고 봤으며, 이런 필연성은 삼각형의 본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삼각형의 무한한 가능성은 그 본질적 특성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속성은 부인될 수 없으며 심지어 신도 이 규칙에 어긋나는 삼각형을 그릴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필연성은 ‘신의 본성의 필연성’이라고 불리며, 삼각형은 자신의 본질적 특성을 어겨선 안 된다는 것 때문이다. ‘기질지성(氣質之情)’도 마치 삼각형의 본질적 속성과 같이 ‘본연지성(本然之性)’을 구성한다. 그래서 ‘본연지성(本然之性)’의 본질은 삼각형과 마찬가지로 동요할 수 없다.

이러한 진리의 필연성은 감정에도 삼각형의 형태로 존재한다. 감정은 자신의 본질적 필연성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처럼 무한한 방식으로 감정을 경험한다. 그래서 감정의 무한한 ‘기질지정(氣質之情)’은 자신의 ‘본연지정(本然之情)’에 따라 존재하는 영원한 결정이다. 이론을 명확히 알게 되면 감정의 ‘자기이해’를 이해할 수 있으며, 성동권은 이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감정과학은 감정의 ‘자기이해’이며, 이 이해는 ‘감정’[감정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는 나의 ‘마음’] 스스로 ‘자기’[나의 몸이 느끼는 ‘감정’]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근거한 자명한 사실은 감정은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마음도 그와 똑같은 필연성으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감정의 관념을 형성합니다. 이것을 감정의 ‘기질지정’ (氣質之情)이라 정의합니다. 그러나 감정과학에 따르면, 감정의 무한성은 그 자신의 무한성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에 관한 한 ‘단 하나’의 자기 본성의 필연성을 따라서 존재합니다. 이것을 감정의 ‘본연지정’ (本然之情)이라 정의합니다.<sup>117)</sup>

감정의 ‘자기이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기질지정(氣質之情)’과 ‘본연지정

116)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21.

117)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23.

(本然之情)’으로 나뉘었다. 우리는 본연의 감정을 ‘성리(性理)’로 정의한다. 몸은 몸 자체가 갖는 필연성에 따라 무한한 방식으로 존재함으로써 몸의 무한한 ‘기질지정(氣質之情)’을 ‘성기(性氣)’로 정의한다. 감정도 자신의 본질적 필연성에 따라 무한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무한한 기질지정을 ‘정기(情氣)’로 정의한다. 성동권은 이론을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합리기(合理氣)의 몸으로 존재하는 몸의 논리는 성리(性理)로부터 성기(性氣)의 필연성입니다. 지금 나의 몸(배꼽)이 자기 안에 품고 있는 몸 생김 그 자체의 필연성으로서 엄마아빠의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 성리(性理)이며, 공자는 이것을 ‘인’(仁)으로 정의합니다. 118)

‘성리(性理)’와 ‘성기(性氣)’는 몸속에서 상호 보완되는데, 이는 이성적인 기운을 몸을 ‘이(理)’와 ‘기(氣)’로 나눔으로써 몸에서 ‘이(理)’를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합리기(合理氣)’를 구성하는 몸이 만들어진 것이다. 삼각형 이론에 따르면, 학습이 몸에 집중하는 한 몸이 존재할 때 심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기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무한하고 영원하게 그 본인 자체로 합리기의 몸으로 존재한다. 성동권은 ‘합리기(合理氣)’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합리기(合理氣)의 몸으로 존재하는 몸을 자기 몸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 마음입니다. 이 몸을 잠시도 떠난 적이 없는 것이 자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기(合理氣)로 존재하는 몸을 본래부터 자기 몸으로 받아서 존재하는 자기 마음 안에는 당연히 합리기(合理氣)가 존재합니다. 즉, 마음이 합리기(合理氣)의 몸을 받아서 생겨나며 놀이한다는 사실로부터 마음은 본래부터 합리기(合理氣)의 몸에 나아가 합리기(合理氣)의 리(理) 그 자체 그리고 합리기(合理氣)의 리(理)로부터 필연적으로 기(氣)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119)

성동권은 ‘성리(性理)’와 ‘성기(性氣)’가 우리 몸에 기원부터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성리(性理)’는 감정과 몸 구체적 상황에서의 추상 능력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성기(性氣)’는 감정과 몸적인 감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천 능력이다. 따라서 ‘리(理)’와 ‘기(氣)’는 몸과 감정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 목적론은 감정과 이성을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행위와 판단은 개인의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야 하며, 이성적 생각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성동권에 따르면 이성적인 기의 존재는 우리 몸 안에 이미 존재하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도덕 법칙을 통해 실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118)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24.

119)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25.



인간 자체가 도덕적인 법칙이며,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본성을 기반으로 정의된 것이며, 칸트처럼 도덕을 추상적인 이성 원칙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에 따라 칸트 목적론은 완전히 잘못된 학문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감정은 매 순간 느끼는 존재이다. 따라서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전의 이론을 바탕으로 합리기를 ‘성(性)’과 ‘정(情)’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결정했다. ‘성(性)’은 ‘몸-생김’이고, ‘정(情)’은 ‘몸-놀이’이다. 감정은 나 자신이 몸로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몸의 존재는 반드시 ‘몸-생김’과 ‘몸-놀이’를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이며, 이것은 자기 몸을 즐기기 위해 사용되며, 감정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이 사실에 따라 퇴계(退溪)는 ‘성발위정(性發爲情)’이라는 이론을 제시했다. 17세기 서양 근대 철학자 스피노자(Spinoza, 1632~1677)도 퇴계(退溪)의 감정에 대한 정의를 확인했다.

나는 정서를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으로 이해한다.<sup>120)</sup>

스피노자는 몸의 변화를 더 자세히 설명하여 퇴계가 제시한 성발위정(性發爲情)을 설명한다. 스피노자의 이론에 따르면 감정은 몸의 변화이며, 몸 자체가 변화하고 나타나는 현상을 감정이라고 한다. 마음은 감정에 대한 개념을 형성한다. 이러한 정신은 목적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의 변화에 의존하며, 감정에 의해 형성된 개념이다. 성동권은 이 관점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 지점에서 서로 다른 몸과 마음은 ‘감정’이라는 단 하나의 실체로 존재한다는 사실 이 증명됩니다. 정신’은 생각하는 ‘사유(the thinking thing) 입니다. ‘몸’은 구체적 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은 드러내는 ‘연장(the extended thing)’ 입니다. 이 둘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사유하는 정신이 생각한다고 할 때 그 생각을 구성하는 관념은 자기 신체의 변용입니다. 더 나아가 ‘신체의 변용’을 떠나서 정신은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sup>121)</sup>

성동권, 스피노자 및 퇴계가 설명한 것과 같다. 감정 자체의 필연성은 인간의 정신이 자기 몸과 몸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사실과 분리될 수 없음을 증명한다. 마음이 자기 몸을 떠나면 무엇을 느낄 수 없고, 잘못된 감정이다. 마음은 자신의 능동성을 통해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개념을 형성한다. 이러한 개념은 반드시 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개념이어야 한다. 몸이 변화할 때 감정이 나타나면, 마음은 감정

120) 스피노자 저, 강영계 역, 『에티카』 (서광사, 2007), p. 153.

121) 성동권, 『서양 근대 17세기 감정과학의 확립』 (부크크, 2022), p. 221.

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며, 이 개념이 마음의 진실이다.

학문이 정의된 상황에서, 그 감정과학은 우리가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감정의 본성을 배우는 학문이다. 자신의 마음은 몸의 본성을 이해하며, 마음은 불가피하게 몸의 변화를 반영하므로 감정은 느낌의 현상이 아니라 고유한 본성이다. 이런 이해는 감정의 존재가 자기 자신 외부의 어떤 외부 이유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 감정의 존재의 필연성에 따라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감정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 존재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학문을 확인한 후, 공자가 말한 이 문장을 다시 살펴보게 된다.

7-22: 다 좋은 세상은 막을 수 없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내게 은덕을 내리셨는데 환뢰가 나를 어찌하겠느냐?

子曰：天生德于予，桓魋其如予何。<sup>122)</sup>

공자는 ‘천생덕우여(天生德于予)’라고 말했으며, 그는 자신의 덕(덕은 ‘도덕(道德)’을 의미하는데, 도덕적 덕을 말한다)이 천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생각했다. 이전에 언급한 ‘지천명(知天命)’ 이론에 따르면 ‘천명(天命)’은 내 현재의 생명, 즉 합리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덕(德)’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며 자신이 없는 것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천(天)’이 몸의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이라고 확립한 후에는(合理氣), ‘합리기(合理氣)’가 성(본연지성)과 정(본연지정)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몸의 본성은 영원히 무한한 생명(성기)과 무한한 사랑(정기)이기 때문에 ‘천(天)’이 우리에게 ‘덕(德)’을 선물한다. 이전의 이론을 기반으로 이미 몸의 본성이 순수하게 선하고 악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몸의 본성을 확립한 후에는 감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몸에서 성리(性理)를 깨닫고 나면, 지금 나의 몸은 성리(性理)로부터 성기(性氣)의 필연성으로 존재하는 무한한 몸 가운데 하나이며 그 자체가 순선무악(純善無惡)입니다. 따라서 단 하나의 “仁”으로 부터 필연적으로 무한합니다.<sup>123)</sup>

성동권은 몸이 본질적으로 순선무악(純善無惡)이라고 생각하고, 순선무악(純善無惡)이라는 학문에 대한 해석을 재확인한다.

122) 조중빈, 『안심논어』 (국민대학교출판부, 2016), p. 185.

123)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24.

순선무악(純善無惡)을 경험에서 찾으려고 하면 과연 그런 것이 있는지 의심스럽지만, 내 몸의 이치를 직관해보면 사실 내 몸이 순선무악(純善無惡)을 증명하고 있다. 내 몸이 순선무악(純善無惡)인 것이다. 그리고 이 원칙은 내 몸뿐만 아니라 천지만물의 모든 몸에 공통된다. 왜냐하면 몸 없이 존재하는 천지만물 없고, 그러한 한에서 부모 없이 존재하는 천지만물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선무악(純善無惡)은 천지만물의 모든 몸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선무악(純善無惡)에서 보면 모든 몸은 단 하나의 순선무악(純善無惡)한 몸이다.<sup>124)</sup>

이 두 가지 이론을 결합하여 몸을 아름다운 몸과 아름다운 몸이 아닌 몸으로 나누면, 아름다운 몸이 한 일은 선행으로 보이지만, 아름답지 않은 몸으로부터 한 일이 항상 악한 것은 아니다. 단지 몸의 성리(性理)를 인식할 수 있으면, 모든 성리(性理)는 반드시 순수하게 선하고 악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몸을 이해하면,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 합리기(合理氣)로 존재하는 감정의 논리는 감정의 힘이 이성에 따라 필연적이다. 감정은 외부의 현상에 따라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자체의 본성에 따라 설명되어야 하며, 감정을 진지하게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를 확립한 후에는 자신의 감정과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모두 감정 자체의 필연적인 본성에 기반한 것이므로 감정은 순수지선(純粹至善)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몸을 통해 살면서 감정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감정이나 몸이든 그들의 존재는 필연적이다. 외부의 영향이나 목표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론에 기반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면 실제로는 헛된 일이다. 왜냐하면 행복의 씨앗은 태어났을 때 이미 몸속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몸과 함께한다. 그러므로 감정과 과학을 배우는 것에 집중해야 하며, 행복은 우리의 추구 대상이 아니라 삶에 이미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 제2절 감정과학에 기초한 중국의 윤리교육 제안

감정과학은 감정 자체의 본성을 무한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며, 감정의 표면적인 해석을 통해 설명되는 행동과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다. 감정은 그 본성적 필연성에 따라서 존재하는 사실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에 따라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감정을 느끼고, 감정 자체의 본성과 필연성을 이해할 때, 그 결과는

---

124) 성동권, 『평화에 대한 철학적 탐구』 (부크크, 2016), p. 141.

감정이 순선무악(純善無惡)을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 감정과학이다.

이 학문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감정의 진실을 이해함으로써, ‘좋은 세계’와 ‘좋은 감정’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도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장 논문은 중국의 윤리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실제의 몸과 감정의 본질을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을 탐구한다.

## 1. 몸의 진실 배우기

이전에 「논어(論語)」의 분석을 통해 본전의 실재성을 배우는 데 중요한 고전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전의 이론에서 몸이 있을 수 있는 이성이 감정과 기질의 필연성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감정과학의 학문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몸은 감정과학의 일부로서, 조선시대의 성리학자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은 1569년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완성했다. 이 작품은 몸과 감정의 내재적 연결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성리학(性理學)이 실제 응용에서 미치는 심원한 영향을 보여준다. 「성학십도(聖學十圖)」의 첫 번째 그림은 「태극도」(太極圖)이다. 이 그림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无极之眞,二五之精, 妙合而凝。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气交感, 化生万物。万物生生而變化无窮焉。<sup>125)</sup>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리해서 이해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무극은 ‘음양(陰陽)’의 결합으로 생겨난다. ‘건도성남(乾道成男), 곤도성녀(坤道成女)’라고 처음부터 태극(太極)인 것이다. ‘생화만물(生化萬物)’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몸이 어떻게 태어난 것을 포함한 것이다. 이것이 감정과학에서의 ‘몸-생김’이다. 몸이 ‘건도성남(乾道成男), 곤도성녀(坤道成女), 이기교감(二氣交感)’의 결과로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빠와 엄마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아빠와 엄마는 ‘무극지진(無極之眞)’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 몸은 아빠와 엄마의 사랑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용에 있는 태극(太極)은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이기 때문에 태극을 설명하는 순수지선의 성은 엄밀히 말해서 무극의 진실이다<sup>126)</sup>. 지금 나의 몸은 아빠와 엄마

125) 『성학십도(聖學十圖)』, 「태극도(太極圖)」.

126) 부흥리, “현대 중국 학문의 위기 극복 방법으로서 감정과학의 「안자호학론」,” 국민대학교 석사

의 사랑을 이어받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빠와 엄마의 사랑은 순수지선(純粹至善)이다. 아빠와 엄마의 사랑이 내 몸을 만들어 내고, 나의 몸은 순수한 선하게 존재하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아빠와 엄마의 사랑은 내 몸에 전해지며, 이는 몸의 본성에서 비롯된 영원한 사랑이다. 이로써 몸이나 감정이 모두 순수지선(純粹至善)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순수지선(純粹至善)의 몸과 감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몸이 늘 때 느끼는 감정이 몸의 진실이다. 그렇다면 감정은 본질적으로 몸에서 비롯된 몸의 진실이다. 이것은 불가피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스피노자도 확인하고 있다.

### Ⅱ 3부, 정의 3.Ⅱ

나는 정서를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으로 이해한다.<sup>127)</sup>

스피노자는 감정이 자신의 존재를 몸에서 확인한다고 여긴다. 몸은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과 영원한 무한한 사랑이다. 그렇다면 감정도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이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몸에 귀결된다. 성동권은 서적에서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정리 4의 보충 2에서】 성리(性理)는 성(性)의 사실로서 순수지선(純粹至善)이고 이것은 사유가 자기 안에서 명백하게 이해하는 성(性) 그 자체의 사실이다. 이로부터 배움은 【정리 6의 증명에 의해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성기(性氣)가 자기 본성으로 존재하는 순수지선의 성리(性理)를 따라서 필연적으로 순수지선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性)에서 리기의 합(合)은 【정리 2의 보충 1에 의해】 성리(性理)의 순수지선 안에서 성기(性氣) 역시 필연적으로 순수지선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리기 인과의 영원한 필연성이다. 이 필연성으로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몸, 즉 합리기의 성(性)은 리(理) 안에서 있는 그대로 순수지선이라는 사실은 필연적이다.<sup>128)</sup>

성동권의 이 이론은 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감정과 몸은 떼어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여긴다. 이것을 ‘신이자 자연’ (Deus sive Natura)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이론은 이전에 언급한 ‘태극도(太極圖)’의 음양균형의 상징성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교훈들의 본

학위 논문(2022).

127) 스피노자 저, 강영계 역, 『에티카』 (서광사, 2007), p. 153.

128) 성동권,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증명된 思學의 四端之情과 不思不學의 七者之情,” 『한국문화』 9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21), p. 461.

질은 모두 몸을 기반으로 한다. 성동권은 여기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성기(性氣)가 자기 본성으로 존재하는 순수지선의 성리(性理)를 따라서 필연적으로 순수지선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기 몸의 본성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과 사랑을 확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성동권은 마음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마음은 성(性)에 관하여 순수지선(純粹至善)의 성(性)인 리(理)만을 알기 때문에 정(情)에 관하여도 순수지선(純粹至善)의 정(情)인 리(理)만을 안다.<sup>129)</sup>

여기까지 감정과 그것이 몸에서 느끼는 것을 순수지선(純粹至善)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해가 몸의 본성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몸의 본성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실재를 진지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은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과 사랑으로 존재하며, 순수한 선하고 지혜로운 본성을 가진 몸이므로, ‘몸-생김’과 ‘몸-놀이’의 진실을 연역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정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존재로서 성취한 것도 순수하고 선하다는 것이다.

감정과학적 학문을 통해 몸을 순수지선이라고 간주하며, 이 진실 속에서 감정을 느끼는 몸의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감정 역시 좋은 감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항상 원하던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얻게 된다. 이러한 학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직 몸의 본성을 배워야 하며, 이 핵심에서 벗어난 어떠한 학습 방법도 올바르지 않다.

## 2. 감정의 진실 배우기

우리는 우리의 몸이 ‘순수지선(純粹至善)’이라고 확인한다. 몸이 있기만 하면 이미 최고의 완전함과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무한한 생명과 사랑으로 존재하는 아빠와 엄마의 몸은 영원한 필연성 속에서, 세상의 모든 몸은 공간과 시간에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생명과 사랑을 얻는다. 성동권은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에서 확인된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몸은 본래부터 순선무악(純善無惡)이다.

그러므로 불선(不善)과 악(惡)으로 존재하는 몸은 본래부터 없다.<sup>130)</sup>

129) 성동권,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증명된 퇴계 선생의 경(敬)”, 『퇴계학논집』 (영남퇴계학연구원, 2016), p. 407.

성동권의 이론에 따르면, ‘몸-생김’과 ‘몸-놀이’의 지식을 결합하여, 이 세상에서 살고 놀고 있는 몸의 본성은 순선무악(純善無惡)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한 후 공자가 한 말을 살펴보자.

12-10: 사람은 스스로 배울 것이 끝도 없다.

사랑하면 그가 사는 것을 원하고 미워하면 그가 죽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미 살기를 원하고서 또 죽기를 원하면 이것이 미혹된 것이다. 미워 죽겠다는 생각이 들 때 이제 볼 장 다 봤다고 오만하게 굴지 말고 정성껏 살피며, 미워서 미운 것이 아니라 다만 나와 달라서 그렇다는 사실을 꼭 붙들여라.

愛之欲其生,惡之欲其死。既欲其生,又欲其死,是惑也。<sup>131)</sup>

우리는 애지욕기생(愛之欲其生)을 엄마 아빠의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 지금의 몸을 만든 것으로 본다. 몸의 진실에서 출발한 이후, 몸은 영원한 무한한 생명과 사랑 가운데서 태어난다. 그러나 세상에는 강도와 범죄자 등 사악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욕구에는 반드시 생명과 사랑에 맞지 않는 악한 욕구가 있다. 이러한 욕구는 악의 욕구로 설명된다(惡之欲其死).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몸으로 살아가며 이 진실을 사랑으로 생명을 갈망하는 사랑의 욕구로 본다. 즉, 애지욕기생(愛之欲其生)이다. 욕구만이 실재하는 것이며, 이외의 욕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지욕기사(惡之欲其死)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이는 욕구가 아니라 욕구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한다.

공자의 학습 방법을 ‘사여학(思與學)’으로 요약한다. 이러한 잘못된 욕구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사불학(不思不學)’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아무도 악한 존재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인간의 영속적인 본성의 진실은 감정과학적 신뢰에서 유래하는 지식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악한 욕구가 발생할 때, 신뢰를 통해 학습해야 한다. 이를 명확히 인식한 후에는, 학문은 더 이상 학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통해 인간을 학습하는 것이다.

선과 악이 몸과 세상의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면, 그것은 오직 자신의 ‘불사불학(不思不學)’으로 인해 내면의 몸과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본질적으로 마음이 자신의 생각을 몸의 감각현상에 의존시키고 있으며, 마음이 자신의 능동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자기이해’를 수행함으로써 자기 몸의 본성 속에서 아빠 엄마의 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면, 이 세상과 감정이 모두 나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 몸의 본성을 잘못 이해하는 마음은 본질적으로

130)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341.

131) 조중빈, 『안심논어』 (국민대학교출판부, 2016), p. 271.

순수한 선인 몸을 가지고 부족함(악)의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생각의 오류이며, 몸의 오류가 아니다. 그러므로 고치려는 것은 몸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하는 마음이다. 마음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는 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것이다.

15-29: 잘못은 고치면 그만이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잘못 하고서 고치지 않는 것을 잘못이라고 한다."

子曰：過而不改，是謂過矣。<sup>132)</sup>

이 문장은 잘못을 저지른 상태에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잘못이라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만일 생각에 오류가 생긴다면, 생각이 스스로 수정될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스스로 생각하며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매우 신성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마음이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고 수정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자신의 신성성을 잃게 된다. 이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이어서, 공자는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였다.

9-23: 다 좋은 세상은 고칠 것이 없다. 아니라면 고쳐야 한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 깨우치는 말을 따를 수 없는가? 도대체 고칠 줄을 모른다. 공손히 일러 주는 말을 기뻐할 수 없는가? 도대체 새겨들을 줄을 모른다. 기뻐만 하고 새겨들지 않고, 졸졸 따라다니면서도 고치지 않으면 나도 어찌지 못하겠다."

子曰：法語之言，能无從乎？改之爲貴。巽與之言，能无說乎？繹之爲貴。說而不繹，從而不改，吾末如之何也已矣。<sup>133)</sup>

이 문장에서 중요한 점은 '개지위귀(改之爲貴)'라는 것이다. 이는 수정이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본래 착하고 악한 게 없기 때문이며, 만약 욕망이 잘못된 이해를 발생시킨다면, '좋은 세계'가 불가능한 이론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잘못된 욕망의 이해는 전쟁 비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공자의 '논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쟁을 막는 지식이다. 왜냐하면 공자는 이 세상에 대한 잘못된 욕망을 수정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몸의 본질을 다시 배우고 이해할 때, 몸에 대한 새로운 학습과 이해, 이러한 몸의 완전한 인식은 우리를 새로운 결과와 인생 경험으로 인도할 것이다. 몸 자체는 순수지선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몸의 변화하는 감정 또한 순수한 선한 것임이 분명하다. 이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행복한 존재이며, 동시에 윤리적인 존재임을 나

132) 조중빈, 『안심논어』 (국민대학교출판부, 2016), p. 271.

133) 조중빈, 『안심논어』 (국민대학교출판부, 2016), p. 223.



타낸다. 그러므로 자기 몸의 진실을 깊이 학습하고 이해함으로써 개인적인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인생의 최대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탐구와 인식의 과정은 내적인 평화와 행복으로 향하는 열쇠이다.

## 제5장 결론

행복은 인간의 공동 추구이며, 개인이든 집단이든 삶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기를 바란다. 유교 사상은 중국 전통문화의 기초로서, 윤리·도덕과 행복 추구에 대해 깊은 지도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회의 빠른 발전과 교육 체계의 변화로 인해 현대 중국의 윤리 교육은 행복의 본질 탐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다. 본문은 유교 경전과 현대 윤리 교육의 현황을 분석한다. 문화 교차 학과의 ‘감정과학’(Science of Feelings)에 근거하여 몸의 진실을 올바르게 이해한다. 감정의 본질을 확인함으로써, 현대 중국의 윤리 교육이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행복 문제를 기반으로 이 논문은 감정과학의 정의와 논리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이로써 행복의 진실을 찾았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몸으로 사는 것을 통해, 몸의 표면적 현상이 아니라 몸의 본질을 이해하고 배웠다. 몸은 무한한 생명과 사랑에서 생겨났으며, 이러한 존재는 필연적이며 감정과학에서는 몸-생김의 본질적 필연성이다. 이 사실에 따라, 감정의 진실이 이성의 필연성임을 확정할 수 있다. ‘몸-생김’을 통해 이 세상에서 ‘몸-놀이’를 한다. 즉, 무한한 생명과 사랑을 통해 이 세상에서 살며, 무한한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의 감정의 본질 또한 무한하고 영원한 필연성이다.

세상의 모든 감정은 몸의 변화에 기초한다. 우리가 몸의 본질을 이해하면 감정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감정은 자신의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외부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행복은 외부에서 찾아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생겨난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최고의 완전성으로 살고 있으며, 이러한 최고의 완전성은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 몸의 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행복을 진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사회 뉴스와 중국 학자의 논문 보고서를 분석하여 중국인들이 유학 교육을 받은 후에도 행복하지 않은 실제 원인을 발견했다. 현대 사회에서 행복은 종종 성공, 재산 및 지위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종종 행복의 내재적 본질을 무시한다. 감정과학 이론에 따르면 윤리 교육은 행복을 다시 정의한다. 자기의 몸과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행복이 생겨난다고 강조해야 한다. 교육은 진정한 행복이 몸의 필연성과 감정의 순수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여기까지가 논문의 첫 두 번째 장이다.

논문의 제3장은 유가 경전인 ‘논어(論語)’와 ‘대학(大學)’을 분석하여 감정과학의 행복을 발견했다. 감정과학은 몸과 감정에 대한 자기 이해를 강조하며, 유가 사상의

‘위기지학(爲己之學)’과 일치한다. 윤리 교육에 감정과학의 이념을 통합함으로써, 행복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대학(大學)’은 감정의 올바른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 이해를 통해 개인마다 자기의 감정을 확신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현대 중국의 교육 체계는 종종 학문적 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인간의 감정적 필요성을 간과한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행복감의 저하와 심리적 문제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윤리 교육은 인간의 감정적 필요를 보다 중요시하고 더 많은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여 개인이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정과학은 몸과 감정의 필연적 관계를 연구하는 한 인문학 전공이다. 몸의 진실을 이해함으로써 감정의 본질을 알아차리는 것을 강조한다. 이 이론적 틀에서 행복은 더 이상 외부적인 추구가 아니라 자기 몸과 감정의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 감정과학은 감정이 몸의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마음과 몸의 연결과 마음의 생각이 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현대 중국의 교육과 사회 환경에서 행복감의 부족은 감정과 몸을 무시함으로써 발생한다. 많은 사람은 행복을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와 동일시하지만, 이러한 외부적 추구는 진정한 만족감을 제공하지 못한다. 감정 과학의 이론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몸과 감정의 자기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몸과 감정의 필연성을 깨닫게 될 때만 최대한의 행복을 자신의 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1. 고전

- 『곽점초묘죽간(郭店楚墓竹簡)』
- 『논어(論語)』
- 『대학(大學)』
- 『맹자(孟子)』
- 『사서장구집주(四書章句集注)』
- 『성학십도(聖學十圖)』
- 『이정집(二程集)』
- 『주자어류(朱子語類)』
- 『중용(中庸)』

### 2. 저서

- 성동권. 2016. 『평화에 대한 철학적 탐구』. 서울: 부크크.
- 성동권. 2022.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서울: 부크크.
- 성동권. 2022. 『서양 근대 17세기 감정과학의 확립』. 서울: 부크크.
- 성동권. 2022.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서울: 부크크.
- 성동권. 2023. 『중용의 감정과학』. 서울: 부크크.
- 양백준. 2017. 『논어역주(論語譯注)』. 중국: 중화서국.
- 예시. 2010. 『예시집 2판』. 중국: 중화서국.
- 조중빈. 2020. 『자명대학』. 서울: 부크크.
- 조중빈. 2016. 『안심논어』. 서울: 국민대학교출판부.

### 3. 번역서

- 스피노자 저·강영계 역. 2007. 『에티카』. 서울: 서광사.
- 칸트 저·이충진 역. 2018. 『도덕형이상학』. 서울: 한길사.

### 4.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 광조(匡釗). 2021. “早期儒家‘爲己之學’以‘心術爲主’的意義.” 『湖北社會科學』 제9기.
- 남풍(南風). 2020. “大學之道, 在明明德.” 『互聯網周刊』 제69기.
- 맹사흥(孟祥興). 2019. “叶适對<大學>的詮釋——從推崇到反思与批判.” 『溫州大學學報』 제35기.

- 반화(班華). 2014. “心理－道德教育服務人生幸福.” 『南京師大學報』 제89기.
- 성동권. 2021.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증명된 思學의 四端之情과 不思不學의 七者之情,” 『한국문화』 94.
- 성동권. 2016.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증명된 퇴계 선생의 경(敬),” 『퇴계학논집』
- 손국풍(孫國峰). 2018. “論儒家爲己之學的張力——以四書爲核心.” 『广西社會科學』 제276기.
- 오권화(吳權華). 2019. “儒家的‘爲己之學’与今日的‘爲師之道’.” 『教師發展研究』 제37기.
- 왕연하(王燕霞). 2015. “孔子的幸福觀思想解析.” 『西北大學』 제1기.
- 왕제주(王齊州). 2023. “〈大學〉對孔子教育思想的理論建构.” 『國際儒學』 제1기.
- 우술성(于述圣). 2020. “通情以達理——〈大學〉‘格物致知’本義及其理論价值.” 『教育研究』 제482기.
- 유가이(劉佳熠). 2023. “亞里士多德幸福觀實踐研究.” 『大衆文藝』 제111기.
- 이건화(李建華). 2021. “道德幸福 何種幸福.” 『天津社會科學』 제2기.
- 이서기(李瑞琦). 2023. “當代大學生幸福觀存在的問題及多維教育路徑芻探.” 『成才之路』 제771기.
- 임춘강(任春强). 2016. “道德与幸福同一性的精神哲學形態.” 『東南大學』 제1기.
- 장순청(張舜淸). 2009. “從知天命到制天命——論原始儒家“生”之倫理的實現方式.” 『武漢大學學報:人文科學版』 제5기.
- 장응평(張應平). 2020. “本源視域中的孔子天命觀再考察.” 『賓宜學院學報』 제4기.
- 장정화(張定華). 2021. “〈大學〉‘三綱領’初探.” 『大學語文建設』 제290기.
- 정천상(鄭天祥). 王克喜. 2021. “‘格物致知’의科學邏輯蘊含.” 『湖南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제1기.

## 5. 학위 논문

- 부흥리. 2022. “현대 중국 학문의 위기 극복 방법으로서 감정과학의 「안자호학론」.” 국민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유지진. 2022. “공자의 감정과학에 기초한 「시경, 「관저」의 인간 행복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장 학. 2022. “감정과학에 기초한 주자와 왕양명의 ‘격물치지’ 이론 연구 분석.”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6. 학회보, 기사

소수묘아동교육(小樹苗兒童教育), “時隔六年中國重返PISA世界第一!這些測評結果更值得我們關注和深思,” 『搜狐新聞(소후뉴스)』 (2019.12.17.)

소화성개예술교육(小花盛開藝術教育), “中國學生幸福感居然全世界倒數第七?教育問題始終是在改革的路上,” (2021.03.21.).

시나재경(新浪財經), “爲什麼經濟持續增長, 國人幸福感却在降低? 這些因素是關鍵,” (2020.11.17)

장빈시평(張濱時評), “中國人全球幸福感最高, 网友的評論却很打臉,” (2023.03.20.).

## 6. 인터넷 자료

光明网. 2024. “邯鄲13歲男孩被害案律師: 18日凌晨已尸檢, 孩子父親全程見証.”  
<https://baijiahao.baidu.com/s?id=1793851785976594899&wfr=spider&for=pc>(검색일: 2024. 03. 18).

高 陽. 2023. “國人幸福感首升第一! 2023年度全球幸福指數報告發布.”  
<https://www.szhgh.com/Article/news/politics/2023-04-28/325617.html>(검색일: 2023. 04. 29).

Baidu백과사전, 2024, “오사우(吳謝宇),”  
[https://baike.baidu.com/item/吳謝宇/19431403?fr=ge\\_ala](https://baike.baidu.com/item/吳謝宇/19431403?fr=ge_ala)(검색일: 2024. 03. 10).

Baidu백과사전, 2024, “항수학습모델”  
[https://baike.baidu.com/item/衡水模式/18161189?fr=ge\\_ala](https://baike.baidu.com/item/衡水模式/18161189?fr=ge_ala)(검색일: 2024.02.12).

Baidu백과사전, 2024, “국제학생평가항목,” [https://baike.baidu.com/item/國際學生評估項目/12770834?fr=ge\\_ala](https://baike.baidu.com/item/國際學生評估項目/12770834?fr=ge_ala).(검색일: 2024.02.12.)

中澤藝術館. 2022. “中國易經文化館館長馮志亮談《論語》——孔子說“知天命”當何解.”  
<https://baijiahao.baidu.com/s?id=1733222613809906610&wfr=spider&for=pc>(검색일: 2022. 05. 19).

## Abstract

### A Study on Eethics Education in Modern China based on the Science of Feelings of Confucian culture.

*by Xinyi, Yuan*

Department of Cross-Cultural Studies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Happiness is the eternal pursuit of mankind, and its meaning is timeless. However, the ways to realize it are changing as times and cultures continue to change. In the modern world of rapidly developing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how to realize personal happiness through education is of great significance. This article explores the combination of Confucian educational philosophy and modern educational practice, and proposes a new educational model based on the theory of emotional science to promote the all-round development of human beings and true happiness.

This article deeply explores the effective fusion of Confucian education philosophy and modern education practice, and proposes a new path to happiness based on the theory of emotional science. The discipline of emotional science not only emphasizes the transmission of knowledge and skills, but also emphasizes the cultivation of emotions. It aims to cultivate human emotion recognition and expression to promote all-round development, and ultimately achieve true happiness. In this way, education is no longer a mere instillation of knowledge, but an educational process with emotions.

This study first recalls the core content of Confucian educational thought, especially Confucius' teachings on "love of people" and "courtesy". These ideas have had a profound impact on traditional Chinese education. Confucian

education not only emphasizes the transmission of knowledge, but also the cultivation of character and emotions, which provides an important humanistic perspective for modern education. However,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economy and the marketization of education, the modern Chinese education system has gradually moved away from this tradition. It focuses too much on examination education and technical skills training, neglecting the importance of human emotional development and moral education.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hinese education system, especially its negative impact on the well-being of students and adults. By evaluating their psychological health status and well-being survey data, I point out that excessive academic stress, lack of emotional education, and lack of social interaction are the main causes of low well-being among students and adults. In addition, the utilitarian approach of modern education prevents students and adults from gaining true satisfaction and personal growth from educ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I decided to write this paper. To find true happiness, we must learn the Science of Feelings. As a result of learning emotional science correctly, we have proven that Confucius's work is the idea of emotional science. We have confirmed that Confucius's study is the inevitable fact of learning our body, and finally, we have confirmed that it is the inevitable fact of learning the inherent nature of our body. This is also the core of emotional science. According to Confucius' Science of Feelings, we can clearly understand the inevitable existence of the body as a "heavenly destiny(天命)". We originally live in eternal and infinite life and love, and we already exist fully in this world with the highest happiness.

The success of education should not only include academic achievement, but also the promotion of human happiness. When we know the truth of happiness, we will surely feel joy. Therefore,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happiness is to learn our body. When we understand our body correctly, we feel infinite emotions within that understanding, and we can treat these emotions with the right mindset. This is the understanding of true happiness.

When we understand the nature of happiness after learning the Science of Feelings, we realize that when we seek happiness externally, we can never



achieve it by relying on material or other things. Whether it's sadness or joy, our minds are capable of thinking about the emotions we feel, and through learning, we can understand not only the truth of our emotions, but also the truth of our bodies. Once you understand the inherent inevitability of your own body, you can identify the greatest happiness that is inherently present in your body.

Key words: happiness, body, Confucian, Science of Feelings